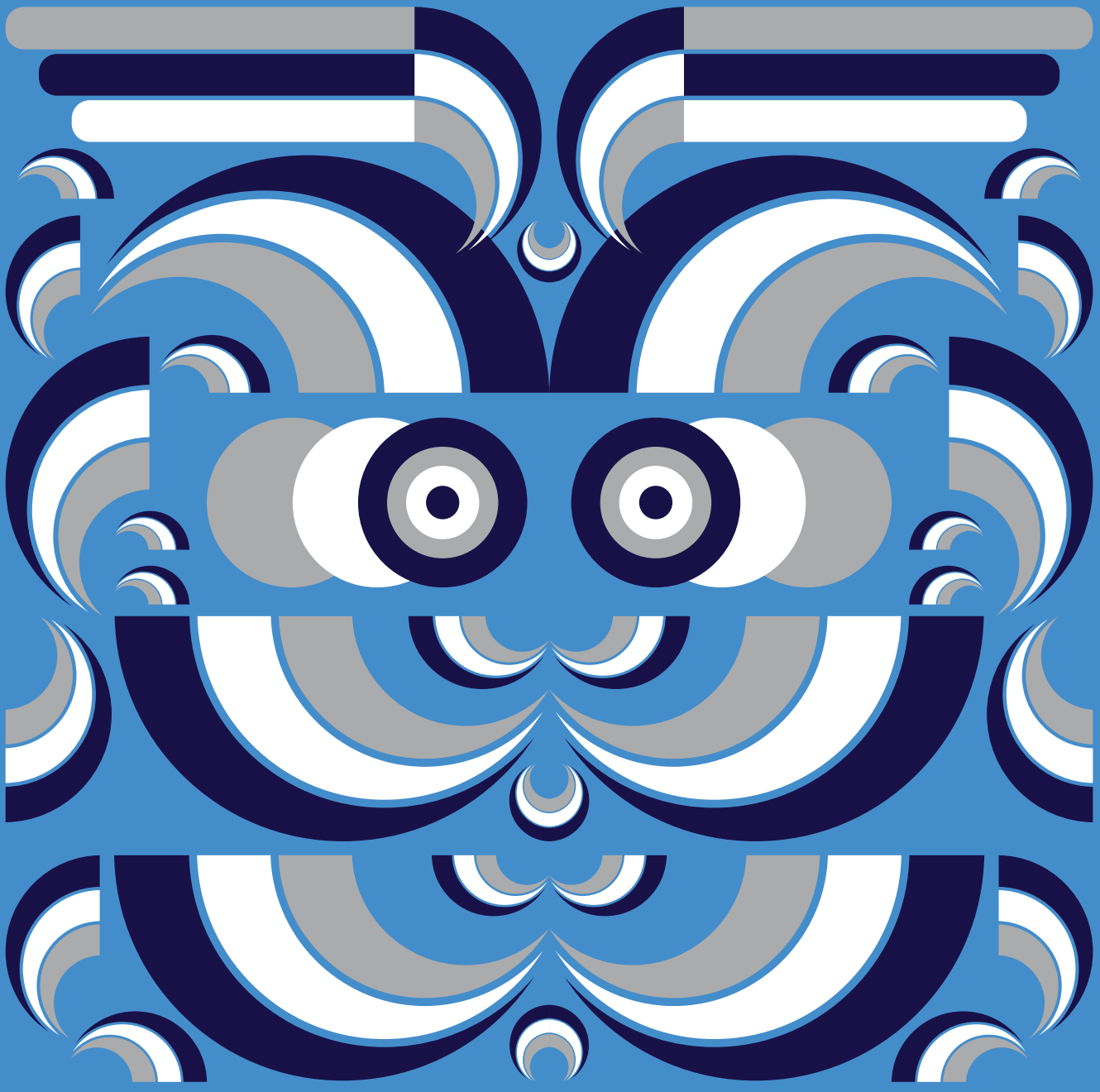
프로그램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2025 서울



#ArtsummitKorea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기간 동안 공동 주최 기관은 주요 이슈를 조명함과 동시에 총회 이후에도 각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SNS를 통해 다양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다음은 SNS 공유에 관하여, 총회가 지향하는 협업, 교류, 존중의 정신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상호 간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다른 참가자 혹은 발표자료의 사진을 촬영 및 게시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얻어 사용해 주십시오. 세션 중 공유되는 정보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참여자 행동 원칙(Principles of Engagement)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www.artsummit.org/programme-kr

Contents

3 축사

4 인사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인사말: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8 국제프로그램자문위원회(IPAC)

10 총회 주제: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14 프로그램 일정

19 5월 27일(화) 개막만찬

21 5월 28일(수) 1일차

22 5월 28일(수) 1일차 세부 프로그램

30 5월 28일(수) 1일차 문화프로그램: 리움미술관

33 5월 29일(목) 2일차

34 5월 29일(목) 2일차 세부 프로그램

47 5월 29일(목) 2일차 문화프로그램: 잔치

49 5월 30일(금) 3일차

50 5월 30일(금) 3일차 세부 프로그램

52 5월 30일(금) 3일차 문화프로그램: 폐막오찬

53 총회 참석 안내

56 대한민국 및 서울 소개

58 서울 내 문화관광 정보

62 버스 시간표

63 지도

66 감사의 글

문화예술세계총회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그램 및 연사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artsummit.org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우리나라를 찾아주신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회원님들을 비롯한 전 세계 문화예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예술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인공지능은 예술계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글쓰기 능력을 흡수하고,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인공지능 국제 영화제'가 열리는 등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작업과 독창적 감성을 바탕으로 제작되던 애니메이션조차도 단 몇 초 만에 이미지로 생성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술과 첨단기술의 결합은 제작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동체 내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술인의 일자리 감소, 창작의 본질에 대한 논란, 저작권과 윤리적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총회를 통해 문화예술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각국의 문화정책과 현장에 신선한 영감을 불어넣고, 창의적 연대와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세계 각국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과 통찰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예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함께해주신 전 세계 문화예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에서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인사말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총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IFACCA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역사의 숨결과 미래의 활력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의 상흔, 급변하는 국제 정세,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문화예술은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불어넣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혁신 기술은 예술적 표현의 지평을 무한히 확장하며, 창작과 향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예술의 창작, 유통, 향유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기술 격차로 인한 소외,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 윤리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문화예술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인 연결과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매개체이며, 문화예술인들은 기존의 체계를 변화시켜나가는 주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변화의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있으며, 우리는 함께 모여 그 바람을 어떻게 마주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바람을 피하거나 막아서기보다, 그 바람을 타고 넘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습니다.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외부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개방성은 고립과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지정학적 바람에 흔들려 왔지만, 우리는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아가며, 스스로 균형을 잡고 우리만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고난을 극복해내는 회복탄력성은 우리의 저력이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뛰어난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문화적 자부심을 드높였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컬처의 역동성은 바로 이러한 개방성과 회복탄력성,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재창조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낸 우리의 흐름은 '한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총회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생생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00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첫발을 내디딘 문화예술세계총회는 그동안 국제 사회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간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는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열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서울 총회는 그간 쌓아온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의 발전이 문화와 예술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과 기술을 넘어 문화예술 전반의 미래를 구상하는 공공,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가 올해 9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문화부 장관급 회의인 2025 몬디아컬트(MONDIACULT 2025)에서의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펼쳐질 심도 깊은 논의와 활발한 교류가 단순한 지식의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연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국의 문화예술 정책과 창작 환경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문화예술이 가진 고유한 힘이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나은 사회,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혁신을 거듭해 온 대한민국의 경험과 성찰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국 문화예술 관계자 여러분께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서의 시간이, 풍성한 영감과 잊지 못할 경험, 그리고 의미 있는 연결을 선사하여,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한 줄기 바람으로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인사말





크리스틴 다니엘슨 © 마르스 버켈/노르웨이문화예술위원회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을 대표하여,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총회는 대한민국의 회원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9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이후, 우리 세계는 여전히 다중위기(polycrisis) 속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위기는 문화예술 생태계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시합니다. 대규모의 글로벌 위기는 기존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전환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성찰과 지배적 서사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로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세계 각국의 동료들로부터 배우며,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열린 대화,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특히 AI 및 생성형AI(GenAI)의 성장은 오늘날 중요한 논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류는 복잡한 지정학적 국제 정세, 물가 상승, 극단적인 기상 패턴과 기후 위기, 대화와 교류를 저해하거나 부정하는 양극화 현상 등의 문제로 신음하며 미래 비전의 정립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문화창의부문(CCS)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금, 우리는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고, 집단적 목소리를 확대하며, 미래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표현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공간 모두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 주요 지식 리더들이 함께 모여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관점, 서사, 지식 체계가 다양할수록 우리의 항해와 미래를 위한 구상은 더욱 입체적이고 탄탄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 9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IFACCA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는 문화예술이 활짝 피어나고, 그 사회적 기여가 널리 인정받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이 사회적 연대 회복, 공동체 재생, 비판적 담론 촉진, 웰빙 증진, 창의적 혁신, 경제 성장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공동의 성찰은 언제나 문화예술세계총회의 핵심이 되어 왔으며, 총회는 IFACCA 회원, 주요 정책결정자, 연구자, 관리자, 그리고 문화창의부문(CCS) 및 관련 분야의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고, 집단적 리더십을 강화하며, 정부 문화예술기관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토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현재와 미래의 문화예술 생태계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각자가 이해관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화예술, 창의적 표현에 내재된 집단적 상상력과 실천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와 제도적 개혁, 지역사회 주도의 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포용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적 권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문화정책이 체제적 분열이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참여 기반 시스템의 한계와 신뢰 구축, 우리의 행동에 대한 평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극화된 공론화가 자치, 진정성, 그리고 서사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결정권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 지식 공유, 세대간 교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는 참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민간 부문, 개인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독립적이며 자생적인 비영리 예술 분야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지속가능한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우리는 지식 체계를 활용해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을 재구성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 총회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문화정책 입안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요구와 불안정한 선거 주기에 직면한 각국 정부, 공공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시민들,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절실한 논의의 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총회는 2025년 9월, 스페인 문화부 주최로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회의 2025 몬디아컬트(MONDIACULT 2025)를 앞두고 개최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문화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천명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총회는 이러한 논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합니다.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차이를 존중하고, 열린 대화와 상호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적 담론의 장으로서, 포용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교차하는 공론장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한 국제 프로그램 자문위원회(IPAC)의 헌신과 통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본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 주최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헌신과 변함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정병국 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여준 기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연맹을 대표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 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모든 협력 기관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세계총회의 주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과업이며, 이 큰 여정을 함께 이끌어 주신 IFACCA 이사회 구성원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사무국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문화예술세계총회에 공감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시고,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나누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간 이어질 담론을 통해 우리가 문화예술을 위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보다 깊고 입체적인 이해가 도출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길을 모색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지지하는 전 세계적 공동 대응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에 관한 전 지구적 의사결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이사장
노르웨이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틴 다니엘슨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사무총장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국제프로그램자문위원회 (IPAC)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의 프로그램은 국제 프로그램 자문위원회(IPAC)와 협력하여 개발합니다. IPAC은 국제 문화예술부문의 전문가, 이번 총회의 공동 주최자이기도 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와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의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방식은 국제사회 내 IFACCA 회원과 전문가 커뮤니티 내에서, 동료들 간의 협업과 교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문화예술세계총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 압두 부슈라 (에티오피아)



© 야스민 압두 부슈라

큐레이터이자, 연구 기반과 프로세스 주도의 협업 실천을 촉진하는 큐레이터 공동체 “Contemporary Nights”의 공동 창립자다. 동아프리카 지역 예술가들의 삶의 경험을 감각적으로 포착하고 이들이 구축하는 연대의 기반을 문서화하여 뿌리 깊은 예술 생태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아카이브와 탈동시대적 예술 실천을 중심으로 작업하면서 전시 기획과 큐레이터 실천의 다원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경영하는 서점과 출판사 “Ankeboot Publishing”에서 활동하며, 책을 지식 생산의 저장소이자 변화 현장으로서 탐구한다.

카디자 엘 벤나위 (모로코 / UAE)



문화예술 부문에서 18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문화 활동가로, 현재 아부다비 문화 재단의 공연예술 책임자로 재임하고 있다. 2005년,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를 위한 최초의 모빌리티 펀드인 “Art Moves Africa”을 설립했다. 2005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이행에 관한 “유네스코 글로벌리포트(2018)”에서 “Surviving the paradoxes of mobility(모빌리티의 역설에서 살아남기)” 장(章)의 저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독립 컨설턴트로서 유네스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아랍문화예술펀드, 포드재단 등과 협업했고,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앨폰스 카라부다 (스웨덴)



© 토비아스 레겔

음악과 문화 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저명한 작곡가다. 현재 유럽 작곡가 작사가 연맹의 명예 회장이자 스웨덴 음악 산업의 상부 기구인 Musiksverige (MusicSweden), 인터넷 미디어 재단과 폴라 음악상 위원회의 의장이며, 글로벌 노드 스톡홀름, 글로벌 뮤직 볼트, 스웨덴 공연 권리 협회의 이사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예술 권리 전문가로, 2013년 최초로 예술 권리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옥타비오 쿨레츠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



© 아샤 카스파리

철학자이자 디지털 출판인,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전자출판사 중 하나인 테세오(Teseo)의 디렉터이다. 유네스코, 프랑코포니 국제기구(OIF), IFACCA, 국제독립출판사 연합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전문가로, 저작 중 하나인 Culture, Platforms and Machines (유네스코, 2018)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이 문화 분야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동시대적 도전 과제를 5년 이상 앞서 통찰했다. 2020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23명의 국제 전문가와 함께 해당 분야 최초의 국제 기준 제정 문서인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이진준 (한국)



©김성백

새로운 기술로 유토피아 공간 이데올로기의 경계공간경험(liminoid experience)을 탐색하는 교수이자 현대예술가이다. 왕립예술학회의 종신석학회원(FRSA)이며, 2021년 블룸버그 뉴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로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미국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의 풀 펠로우십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런던왕립예술대학에서 미디어아트 석사학위, 옥스퍼드대학교 러스킨 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이자 문화기술연구소 아트앤테크놀로지센터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콘텐츠 아카데미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플루언 프림 (캄보디아)



캄보디아 리빙 아츠(Cambodian Living Arts, CLA) 대표로, 전통 예술 복원을 위한 풀뿌리 프로젝트였던 CLA를 캄보디아의 급속히 성장 중인 예술 분야에서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킨 선구적인 문화 기업가이다. '메콩 문화 허브(Mekong Cultural Hub)'의 창설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으며, CLA가 개발한 과목 '변혁을 위한 예술: 캄보디아의 사례'를 NYU 아부다비에서 3년간 가르쳤다. 기술혁신을 통해 문화유산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국제적 노력의 중심에 글로벌 사우스 네트워크를 자리시키고자 '우리만의 AI(An AI of Our Own)'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푸자 수드 (인도)



인도 내 시각예술 분야에서의 실험과 교류를 지향하는 독립 비영리 단체인 코지 국제예술가협회(Khoj International Artists' Association)의 공동 설립자이자 협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실험적 예술 공간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남아시아 예술 네트워크(South Asian Network for the Arts, SANA)를 탄생시켰다. 인도 정부 산하 자와할랄 칼라 켄드라(Jawahar Kala Kendra, JKK)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아씽크사우스아시아(ArThinkSouthAsia)의 창립 디렉터, 48 Degrees Celsius: Public. Art. Ecology의 예술감독 겸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쉐브닝 장학생(Chevening Scholar)로, 인도 뉴델리에 살고 있다.

총회 주제: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불확실하고 취약한 이 시대, 우리는 다중위기(polycrisis)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균형을 찾기 위한 역량과 기술 개발이 그만큼 시급한 실정으로, 이는 2023년 5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9차 문화예술세계총회의 폐회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전례 없는 양상과 속도의 지속적인 변화는 어느덧 일상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팬데믹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또는 세계적 차원의 위기는 기존의 회로를 단절시키고 비판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며, 지배적인 서사를 재조정하여 대안적인 경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야 말로, 과거의 오류로부터 교훈을 얻고 당면한 여러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회를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화와 협력적 설계를 위한 노력을 통해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전 세계 문화예술 생태계는 물론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주요 리더들과 결정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창의부문(CCS)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식 체계를 교환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측 가능한 디지털 및 기술적 현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본 총회는 문화예술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함께 창출하고, 국제 사회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우리의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회는 2025년 9월 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2025 몬디아컬트(MONDIACULT)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몬디아컬트는 세계 각국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이 향후 문화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post-2030아젠다에 문화를 독자적인 목표로 새겨 넣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문화는 미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문화창의부문의 미래 대응 역량의 함양과 이를 위한 최선의 실천 방안입니다. 다중적인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디지털 현실과 권력의 역학,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각종 도전 과제들이 맞물린 여러 기술 발달단계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식은 문화예술 부문에서 공동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그 동안의 생생한 경험과 여러 현장 및 우수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총회는 열린 대화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와 배움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관점을 조명할 것입니다. 다양한 지식 체계, 기술 진보, 디지털화와 혁신이 문화 부문의 변혁, 역량강화, 탈식민화,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종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찰, 토론함으로써 해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총회 프로그램은, 다양한 맥락과 체계를 고려, 활용하여 다음 세 가지의 공통적인 대주제(transversal cluster)에 대한 미래 전망과 대응의 방법론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 지식 체계와 주체성 (Knowledge System and Agency) (2) 참여 체계와 유대감(Participatory System and

Connectedness) (3) 디지털 체계와 기술(Digital System and Technology) 세 가지의 대주제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관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특정 주제에 더 집중할 수도 있지만, 모든 대주제는 토론과 실행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고 고려될 것입니다.

• 지식 체계와 주체성

미래에 대응한다(Futureproof) 라는 것은 앞날을 예상하고 적응 방식을 고안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되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위원회, 문화부, 문화기관을 포함한 문화창의부문의 이해당사자들이 다중적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식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체계들은 문화창의부문의 미래 대응/전망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식 체계와 지식 체계가 작동하는 환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아이디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식 체계는 조직구조, 프로세스, 프레임워크에서부터 정보, 데이터, 통찰과 전략적 방향을 수집, 관리, 모니터링, 안내하고 보급하는 데 필요한 자원까지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체계는 분석, 연구, 교육과 학제 간(cross-disciplinary) 접근을 통해 강화됩니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 체계는 미래 대응과 전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소외계층의 의견과 원주민(indigenous)의 관점을 널리 공유하여 포용적이고 평등한 방식으로 다채로운 문화적 서사를 재현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들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권력 구조를 재구성하고 탈식민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문화창의부문을 구축하는 문화정책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참여 체계와 유대감

제9차 총회 당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public debate)가 점차 사라져 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문제로 인식하며, 디지털 플랫폼, 소셜 미디어, 언론 조직 및 문화예술기관들의 게이트키퍼(gatekeepers)로서의 역할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성 요소들은 민주적인(democratise) 문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지만 편향적인(dominate) 환경이나 본인의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접근하는 고립된(eco chambers)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열린 대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상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논의와 대중 여론을 양극화하는 동시에 강화하기도 합니다. 특히 문화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예술이 상징적인 표적이 되거나 경쟁구도를 위해 오용되는 상황이 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의 목소리를 더욱 강화하여 비주류의 의견을 주변화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문화 플랫폼은 각종 압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그런 한편 (동료들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검열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적 과정은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 대응의 성패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다각도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감과 집단성은 또한 인간과 환경의 관계, 즉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를 포괄합니다. 인간 사회 너머의 세상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미래 전망과 대응이 불가능한 만큼, 인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와 환경까지 포용적으로 고려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따라서, 유대감과 집단성은 문화예술의 생태계, 특히 표현의 자유 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제 공동체로서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디지털 체계와 기술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 경험을 근본적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을 신뢰하는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창의부문에서 디지털 기술과 도구들은 예술적, 문화적 실천에 있어서의 변화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창작에서부터 제작, 유통, 접근성, 그리고 참여 방식에 이르기까지 문화가치사슬 전체의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실험, 협업, 창작, 실연은 물론이고 관객을 찾는 과정에서 더 폭넓은 기회와 최적화된 절차를 제공해 줌으로써 예술가들의 작업방식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 격차(digital divide)는 필요한 인프라와 숙련도, 지식, 경험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갈라 놓기도 하며, 언어, 장애, 인종, 젠더와 같은 기존의 장벽을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신기술은 새로운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 유산 보존, 정보 집적, 시장 개척, 혁신적 사업 모델 도입 등 문화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관련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도전 과제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적 재화와 용역은 공급의 집중을 초래하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콘텐츠 검색 용이성(discoverability)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인프라, 자금, 시간, 인력 또는 기술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훈련 방식들이 존재하고, 또 이들이 어떠한 서사(그리고 언어)에 기반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총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현 맥락과 조건을 고려해 문화창의생태계 전체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술을 논의합니다. 정보 수집 자동화와 머신 러닝, 그리고 기술과 디지털 공간이 새로운 작품과 혁신적 사고를 위한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합니다. 급격히 발전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창의생태계가 직면하는 과제들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도구와 역량을 제공하고 배양해 주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탐색하며, 정보 체계가 지식과 증거 기반의 토대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프로그램 일정

5월 25일(일)

10:00–18:00 등록: 노보텔 동대문 1층 로비

5월 26일(월)

07:00–18:00 등록: 노보텔 동대문 1층 로비

5월 27일(화)

09:00–17:00 등록: 노보텔 동대문 1층 로비

09:00–15:30 IFACCA 회원행사(IFACCA 회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14:00–16:00 사전 문화프로그램(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서울공예박물관, 하이커그라운드

15:30–17:30 연사 대상 사전 브리핑(연사, 모더레이터, 퍼실리테이터, 패널 등)

18:00–20:00 등록: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

18:30–21:30 개막만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

5월 28일(수) 1일차

*모든 오전 세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IFACCA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A1, A2, B1, C1에서 진행되는 세션에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TR 기호로 표시됩니다.

08:00	A1	셔틀버스 운행: 노보텔 동대문 →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입장
09:00–09:30 TR	A1	**환영 및 개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FACCA
09:30–10:30 TR	A1	**대담1:** *저항, 회복력, 대응, 갱신* **김아영**(한국), **마이클 러닝 울프**(미국) 소개: **사이먼 멜러**(영국-잉글랜드)
10:30–11:00	A3 A4	커피 브레이크
11:00–12:30 TR	A1	**통합1_패널:**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 **박양우**(한국), **알렉산드라 잔타키**(그리스/영국), **야리 카마라**(시에라리온/우간다), **마르시아 헬레나 곤살베스 홀렌베르그**(브라질) 모더레이터: **크리스틴 다니엘슨**(노르웨이)
12:30–14:00	D2	점심
14:00–16:00	A1 A2	**월드카페:** *미래의 (재)구상* **플루언 프림**(캄보디아), **파블라 페트로바**(체코공화국), **하켈 다 크루즈 리마**(브라질), **하니코 테 쿠라파**(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박지선**(한국), **이 준**(한국), **신 구**(중국/호주), **전윤형**(한국) 모더레이터: **토니 아타드**(몰타)
16:00–16:30	A3 A4	커피 브레이크
16:30–18:00		병행세션

A1, A2, B1 — *병행 1_패널* (A1) TR
한국 예술과 문화의 탄력적 미래상: 비판적 고찰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콜롬비아/한국), **유상근**(한국/미국), **정세랑**(한국), **신혜린**(한국)

A1, A2, B1 — *병행 2_워크숍* (A2) TR
AI 해독: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창의성과 문화 서사
옥타비오 쿨레츠 (이탈리아/아르헨티나)

A1, A2, B1 — *병행 3_패널* (B1) TR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길을 찾다: 지역적 파급효과 매핑
레누 기미레(네팔), **마노즈나 옐루리**(인도), **파라이 음푼냐** (짐바브웨), **토마스 페테르스**(칠레)

C1, D1, E3 — *병행 4_패널* (C1) TR
문화적 역량 개발: 문화 생활에의 참여 증진
차이마 람지
자아투트(이집트), **카이사 륀쾨**(핀란드), **전유진**(한국), **마우리시오 델핀**(페루/미국)

C1, D1, E3 — *병행 5_롱테이블* (D1)
공통의 기반 모색: 분열된 세계에서 유대감 재구축하기
지크리 라흐만(말레이시아), **니우샤 칸모함마디** (스웨덴), **로베르트 피아스코프스키** (폴란드), **미셸 차울라**(캐나다)

C1, D1, E3 — *병행6_롱테이블* (E3)
지식 체계의 회복: 서사의 변혁적 힘
레이 엘씨(홍콩특별행정구, 중국), **에바 마리 왕**(필리핀), **삼바 용가**(잠비아), **팔로마 에스테베스**(칠레/미국)

E4 — *병행7_오픈세션*
퍼실리테이터: **다이앤 도드**(영국/스페인)

18:00		셔틀버스 운행: 아르코예술극장 → 리움미술관
18:30–20:30		**문화프로그램:** *리움미술관* 리셉션 및 전시 관람
20:30		셔틀버스 운행: 리움미술관 → 노보텔 동대문

5월 29일(목) 2일차

08:00 A1 셔틀버스 운행: 노보텔 동대문 →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입장 시작

09:00–09:15 A1 TR **1일차 돌아보기**
실비 뒤랑 살바띠에라(코스타리카/미국)
알라스터 에번스(영국–스코틀랜드)

09:15–10:15 A1 TR **대담 2:** *기술혁명 시대에 서사의 다양성 지키기*
푸자 수드(인도), **게어프리트 슈토커**(오스트리아)
소개: **정병국**(한국)

10:15–10:45 A3 A4 커피 브레이크

10:45–11:35 A1 TR **통합2_패널:** *문화창의부문(CCS)의 건설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AI 윤리와 거버넌스*
미카엘라 만테냐(아르헨티나), **이진준**(한국)
모더레이터: **오조마 오차이**(나이지리아)

11:40–12:30 TR **통합3_패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적 권리와 책임*
시슬레 제이콥스(나미비아), **하이앤 투알리마**(사모아/뉴질랜드)
모더레이터: **캐시 롤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

12:30–14:00 D2 점심

14:00–15:30 **라운드 1:** 병행세션

A1 A2 B1 TR ***병행 8_패널*** (A1)
문화 투자모델의 미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김해보(한국), **케드몬 마파나**(탄자니아), **네베나 투도르 페르코비치**(크로아티아), **애드리언 콜레트**(호주)

TR ***병행9_원형대화*** (A2)
과거를 기리며: 함께 귀길울이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대화
잉가–릴 순세트(노르웨이), **호세 안토니오 안칸 하라**(칠레), **파울라 카**(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아마레스와르 갈라**(인도/호주)

TR ***병행10_패널*** (B1)
미래대응(futureproofing)의 실천: 주체성, 접근성, 포용성
구자혜(한국), **아이카 알레미**(카자흐스탄) **소피아 알렉산데르손**(스웨덴), **아비드 후세인**(영국–잉글랜드)

C1 D1 E3 TR ***병행11_패널*** (C1)
창의적 교차점: 음악 산업이 제공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전반에 걸친 교훈
셰인 샤피로(영국–잉글랜드), **심희진**(한국), **산티아고 알파로 로톤도**(페루), **카디자 엘 벤나위**(모로코/UAE)

병행12_롱테이블 (D1)
세계적 연결: 초국가적 문화교류와 이동성 재고
데레카 델레보–그랜트(바하마), **디에고 멘카로니**(이탈리아/미국), **만카 A. 치핀디**(잠비아), **마리 르 수르**(프랑스/벨기에)

병행13_롱테이블 (E3)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문화 노동자를 위한 노동 조건의 존엄성 보장
에두아르도 사라비아(콜롬비아/독일), **피나 소**(캄보디아), **홍기원**(한국), **카이사 라빈**(스웨덴)

E4 ***병행14_오픈세션***
퍼실리테이터: **히로코 츠보이–프리드먼**(일본/스위스)

15:30–16:00 A3 A4 커피 브레이크

5월 29일(목) 2일차

16:00–17:30 **라운드2:** 병행세션

A1 ***병행15_패널*** (A1) TR
A2 *포스트-2030 유엔*
B1 *의제에서의 독립적인 문화 목표 수립: 경로와 전망*
저스틴 오코너(호주), **응우옌 프엉 화**(베트남), **파스 포르탈레스**(칠레/프랑스), **하스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울라노스키**(스페인),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칠레/호주)

병행16_워크숍 (A2) TR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
다이애나 레이(콜롬비아/캐나다), **에이브릴 조프**(남아프리카공화국)

병행17_패널 (B1) TR
온고지신: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와 유산 보존하기
김희선(한국), **움베르토 로페스 라 베야**(파라과이), **버넌 조셉 코르푸즈**(필리핀), **크리스토퍼 와이워리**(솔로몬제도/바누아투)

C1 ***병행18_패널*** (C1) TR
D1 *문화 거버넌스의 탈중앙화: 정책과 실천의 전환*
E3
질 도레(캐나다), **앙헬 모레나**(콜롬비아), **조정윤**(한국), **줄리 디포파**(남아프리카공화국)

병행19_롱테이블 (D1)
갈등의 시대, 문화의 역할: 공감과 연대를 향하여
로이신 맥도너(영국-북아일랜드), **압둘라 알카프리**(레바논/벨기에), **준 에이 퓨**(미얀마), **다리나 지보흘랴도바**(우크라이나)

병행20_롱테이블 (E3)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실천: 기후 행동과 지속가능성에서 문화의 역할
지미 사비(세이셸), **최지원**(한국), **수재나 탄템사**(태국/미국), **프란시스 C. 코야 바카우타**(피지)

E4 ***병행21_오픈세션:*** *끝나지 않은 과제*
모더레이터: **토니 아타드**(몰타)

17:30 셔틀버스 운행: 아르코예술극장 → 스테이지28

18:30–21:00 **문화프로그램:** *잔치*
잔치: 음식을 마련하여 손님을 접대하고 함께 즐기며 기쁨을 나누는 한국의 전통적인 풍습

21:00 셔틀버스 운행: 스테이지28 → 노보텔 동대문

5월 30일(금) 3일차

08:00	A1	셔틀버스 운행: 노보텔 동대문 →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입장
09:00–09:15 TR	A1	**2일차 돌아보기** **실비 뒤랑 살바띠에라**(코스타리카/미국) **알라스터 에번스**(영국–스코틀랜드)
09:15–10:00 TR	A1	**통합4_청중토론:** *청중의 관점: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안드레스 그리브니코우**(아르헨티나) **미셸 차울라**(캐나다)
10:00–10:30	A3 A4	커피 브레이크
10:30–10:35 TR	A1	**인사말:** *지역과 국제사회의 연결을 위해* **김갑수**(한국)
10:35–12:00 TR	A1	**통합5_패널: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 **아탕 L.S. 아놀드**(보츠와나), **하스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울라노스키**(스페인), **에르네스토 오또네 라미레즈**(칠레) *영상, **에밀 카이루아**(쿡제도), **조 쿠카타스**(말레이시아) 모더레이터: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칠레/호주)
12:00–12:30 TR	A1	**폐회사** **크리스틴 다니엘슨**(노르웨이) **정병국**(한국) 모더레이터: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칠레/호주)
12:30–14:00	C2	**폐막오찬**
14:00		셔틀버스 운행: 아르코예술극장 → 노보텔 동대문
14:00–18:00	E2	**자유 네트워킹** 예술가의집 라운지

5월 27일(화)
개막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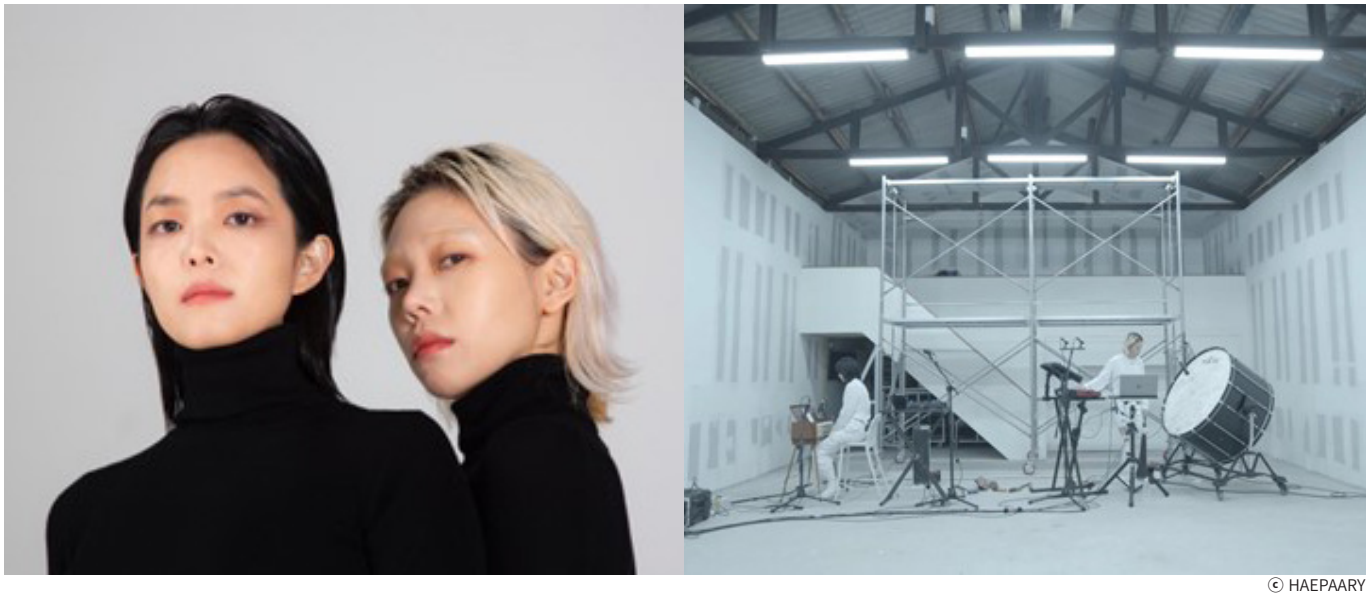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 만찬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여성 최초로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축물은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이 함께 깃든 동대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간수문'이라는 이름으로 물길이 흐르던 이곳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였습니다. 물과 사람, 생각과 물자가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력을 만들었고, 이는 곧 동대문시장으로 이어져 한국의 산업화와 패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스포츠의 아이콘이 되었다가, 현재 DDP라는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격변하는 시대 속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정형의 은빛 패널로 뒤덮인 DDP는 이러한 한국의 도전과 성취를 상징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와 빠르게 행동하는 열정으로 이룬 놀라운 성과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창조가 공존하고 있는 이곳 DDP에서 우리는 오늘 600여 년 전 지어진 이간수문의 길을 따라, 현대적인 감성을 갖춘 건축물인 DDP에서 특별한 자리를 여는 밤을 맞이하려 합니다. 이 특별한 밤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은 엠비언트와 테크노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을 재해석해 가장 현대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해파리'의 공연과 한식 정찬이 선사하는 미식 경험입니다. 특별히 준비한 이번 만찬 메뉴는 한국 전통의 맛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낸 코스 요리입니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정성껏 준비된 각 요리는 한식의 깊은 풍미와 섬세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국악과 전자음악, 전통과 현대, 낯섦과 익숙함을 조화롭게 버무리는 '해파리'의 공연은 참석자 여러분께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이번 공식 개막 만찬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혁신을 함께 체험하며 문화예술계의 글로벌 리더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번 만찬을 통해 대한민국에서의 특별한 추억과 함께 앞으로 이어질 총회의 성공적인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HAEPAARY

HAEPAARY(해파리)

HAEPAARY(해파리)는 민희(보컬)와 혜원(사운드 프로듀서, 인스트루먼트)로 이루어진 얼트 일렉트로닉(alt-electronic) 듀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년기부터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로서 다져진 시간을 덧대어 음악적 이중언어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색깔을 보여줍니다. 엄격한 형식과 규율로 점철된 유교 음악에 레이브와 트랜스의 청각적 어법을 결합한 해파리의 트랙들은 정제된 가무악에 숨겨져 있던 팝의 면모를 이끌어냅니다.

- 태평가
- 귀인-형가
- 부러울 것이 없어라
- 소무-독경

장소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https://ddp.or.kr

일정

18:00 등록
18:15 노보텔 동대문 → DDP
18:30 리셉션
19:00 개회 및 공연
20:00 정찬
21:30 DDP → 노보텔 동대문
* 셔틀버스가 제공되며, 자세한 정보는 www.artsummit.org/transport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장

비즈니스 정장

보안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등록 및 초청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등록 및 초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또는 초청장을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찬장 내 물품보관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개인 소지품 분실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수)
1일차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성찰로 시작합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직면한 변화에 따른 주요 사안들을 다루며, 문화예술 부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과 익숙한 도전 과제들을 고찰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공공과 민간 행위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1일차 핵심 주제

- 초국가적 문화관계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세계 각지 문화창의부문의 현실과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합니다.

- 지식 계층의 재구조화 및 참여적 체계에 대한 토론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균열, 저항, 회복탄력성을 포함하여 형평성, 정의, 탈식민화 등의 주제를 고찰합니다.

-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현실과 관련된 권력 역학에 대해 논할 때, 기술과 문화의 교차점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주요 논점이 됩니다.

-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위한 경로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적절하며 공정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 따라서, 첫째 날은 현재를 파악함으로써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월 28일(수)
1일차 세부 프로그램

모든 오전 세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IFACCA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A1, A2, B1, C1에서 진행되는 세션에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TR기호로 표시됩니다.

09:00–09:30 *환영 및 개회*

문화예술세계총회 소개 및 개회사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칠레/호주)
IFACCA 사무총장

정병국(한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09:30–10:30 *대담1*

저항, 회복력, 대응, 갱신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A1 TR

현재 사회와 문화창의부문(CCS)이 직면한 각종 임계점과 변화를 다루는 개막 세션에서는 두 명의 문화계 리더, 선구적인 한국의 미디어 아티스트와 데이터주권을 옹호하는 미국 원주민인 컴퓨터 과학자이자 시인이 풍부한 문화예술 창작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점을 제시한다.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서사의 공존을 지원하는 기술 및 디지털 공간,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집단적 모임을 촉진하는 다중공간(poly–space)의 시급한 필요성을 함께 논한다. 또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문화를 통해 도전하고 적응하는 방식을 찾아보고, 더불어 오늘날의 세계에서 문화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 가치, 문화를 통해 저항하는 방법, 회복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럼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성찰한다.

연사 **김아영** (한국)
아티스트

마이클 러닝 울프 (미국)
FLAIR 수석 아키텍트

소개 **사이먼 멜러** (영국–잉글랜드)
잉글랜드예술위원회 부위원장(예술 및 박물관 부문)

10:30–11:00 **커피 브레이크**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1층 로비– A3, 2층 로비 – A4

11:00–12:30 ***통합1_패널***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첫 번째 통합세션에서는 전무후무한 속도로 진행되어 온 시대적 변화 속에서 문화와 문화창의부문(Cultural and Creative Sector, CCS)이 지니는 사회적인 차원의 의미를 성찰한다. 최근의 발전 양상과 기존의 사회구조적 문제점, 새로이 부상한 긴장 관계 등을 고찰하고, 전 지구적 사안들이 지역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국가적 또는 지역적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의제를 바탕으로 문화의 중요성이 인정받은 사례들을 되돌아보는 한편 존속하는 장애 요인들 또한 짚어볼 것이다.

미래의 경로를 협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의 미래는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위협은 무엇이고, 타협이 필요한 지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30년 이후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문화와 관련해 독립적인 의제를 발의하기 위한 공동행동은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가?

연사

박양우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제51대 장관(2019-2021)

알렉산드라 잔타키 (그리스/영국)
유엔 문화권 분야 특별보고관

야리 카마라 (시에라리온/우간다)
문화정책 자문가, 작가

마르시아 헬레나 곤살베스 홀렌베르그 (브라질)
브라질 문화부 문화시민권 및 다양성 담당 국장

모더레이터

크리스틴 다니엘슨 (노르웨이)
IFACCA 이사장, 노르웨이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2:30–14:00 **점심**

장소: 아르코미술관 – D2

14:00–16:00 ***월드카페(WORLD CAFÉ)***
미래의 (재)구상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소극장 – A2 TR

* 통역 제공: (전체) 사전 설명 및 사후 토의결과 발표 시, (일부 테이블) 그룹 토의

월드카페(World Café)는 참여자 간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미래에 대한 집단적 통찰을 도출하는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대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문화예술의 미래를 형성하는 핵심 사안들에 대해 소그룹 단위로 가능성을 탐색한다. 각각의 소그룹은 혁신적 해결책을 요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한다. 이는 현재와 바람직한 미래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각 그룹은 주요 이슈가 성공적으로 해결된 2050년의 모습을 상상한다. 또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목표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여, 이를 해결 중심 접근법을 모색하고, 그 실행과정을 개요 형태로 정리한다.

월드카페에서 다룰 주제는 여덟 가지로, 각 주제마다 논의를 점화할 토론자(provocateur)를 배정한다. 도발자들은 세션 종료 시점에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한 로드맵을 정리하여 그 개요를 제시한다.

1.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위한 협력적 경로 구축*
   플루언 프림 (캄보디아)
   캄보디아 리빙 아츠 대표
2. *분열과 에코 챔버(eco chamber)를 넘어선 대화 촉진*
   파블라 페트로바 (체코)
   체코 예술연극연구소 소장
3. *형평성, 정의, 문화적 권리 증진*
   하켈 다 크루즈 리마 (브라질)
   ARTICLE 19 브라질 및 남아메리카 법률참고센터 센터장
4.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와 원주민 지식 체계의 존중*
   하니코 테 쿠라파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뉴질랜드예술위원회 테 카우파파 오 토이 아오테아로아 수석 관리자
5. *인간과 자연의 연결성 회복과 기후 위기 대응*
   박지선 (한국)
   독립 프로듀서
6. *인공지능(AI), 디지털 현실, 권력 역학 다루기*
   이 준 (한국)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부교수
7. *문화창의부문(CCS)의 공정하고 존엄한 노동 환경 보장*
   신 구 (중국/호주)
   호주 모나시대학교 문화 및 창의산업 석사과정 디렉터
8. *글로벌 거버넌스 및 초국가적 문화 관계 강화*
   전윤형 (한국)
   영화정책전문가

모더레이터 **토니 아타드** (몰타)
컬처 벤처 창립자

16:00–16:30 **커피 브레이크**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1층 로비– A3, 2층 로비 – A4

16:30–18:00 **병행세션** (A1, A2, B1, C1, D1, E3, E4)

병행1_패널
한국 예술과 문화의 탄력적 미래상: 비판적 고찰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이번 패널토론에서는 세계무대에서 한국 문화예술이 그려온 독특한 궤적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며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공명을 일으키는지 분석, 고찰한다. 논의의 핵심은 탄력적 미래성(elastic futurity)이라는 개념으로, 이는 과거를 제약으로 보는 대신 미래를 형성하는 자원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의 예술가들은 역사를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며 정체성, 소속감, 변화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전개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래성과 지금, 여기의 현실이 맺고 있는 변증법적 관계이다. 한국 예술에서는 시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상호교차하면서 고유한 예술적 기풍을 형성하는 동시에 지역적인 요소와 국제적인 감각을 아우른다. 이러한 탄력적 시간성(elastic temporality)은 시간에 대한 유연한 인식을 통해 가능성의 범주를 급진적으로 재구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여기서 미래는 고정된 경로가 아니라 변화 가능성에 열려 있는 유동적 공간으로 자리한다.

연사들은 문화 생산, 사회적 역학, 기술 혁신,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한국 예술의 현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역학 관계가 전 세계 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대화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며, 개방적이고 상호 연결된 세계 공동체를 상상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패널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 (콜롬비아/한국)
작가

유상근 (한국/미국)
매리스트대학교 영문학, 국제학 조교수

정세랑 (한국)
작가

모더레이터/패널
신혜린 (한국)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16:30–18:00 ***병행2_워크숍***

AI 해독: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창의성과 문화 서사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A2 TR

본 워크숍은 예술가, 큐레이터, 연구자, 예술 경영인, 문화 노동자,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에서 문화와 예술에 미치는 인공지능(AI)의 다층적 영향에 대해 집단적,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는 자리이다. AI의 현주소에 대한 발표로 시작해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AI가 언어 다양성, 창의 산업,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그리고 가능성을 살펴보고,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함의까지 함께 고찰할 것이다. 특히 이번 워크샵은 문화 서사가 AI의 개발과 적용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비판적 대화를 장려함으로써, 문화창의부문(CCS)에서 AI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퍼실리테이터 **옥타비오 쿨레츠** (이탈리아/아르헨티나)
테세오 대표

16:30–18:00 ***병행3_패널***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길을 찾다: 지역적 파급효과 매핑

장소: 이음센터 아트홀 – B1 TR

복합성, 다중위기(polycrisis), 불확실성이라는 작업 환경(operating environment)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은 사회, 국제 관계, 그리고 문화창의부문(CCS)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여러 공동체와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 지역에서 어떠한 국지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실천사항과 장애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 패널 토론에서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지역적 영향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구조적 불평등, 제한된 자원과 지식,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역사회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번 논의에서는 최근의 변화가 유대감(connectedness)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문화창의부문(CCS) 내에서 다양한 지식 체계(knowledge systems)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문화 기관과 창의적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회복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패널 **레누 기미레** (네팔)
프리덤 스튜디오 프로그램 어소시에이트

마노즈나 옐루리 (인도)
아티스트 앳 리스크 커넥션 (ARC) 아시아 지역 대표

파라이 음푼냐 (짐바브웨)
독립문화정책전문가

모더레이터/패널 **토마스 페테르스** (칠레)
칠레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학부 조교수

16:30–18:00 ***병행4_패널***

문화적 역량 개발: 문화 생활에의 참여 증진

장소: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 – C1 TR

문화 참여(cultural participation)란 단순히 문화적 재화(goods)와 서비스(services)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면, 문화 참여란 개인의 고유한 서사(narratives)를 바탕으로 문화적·창의적 역량과 실천을 증진시키는 과정, 아이디어 교류(exchange of ideas), 공동체적 실천(community practices),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개방적 의사결정(open decision–making processes) 등을 포괄한다.

참여(participation)는 다양성(diversity)과 차이(divergence)라는 요소에 의해 촉진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문화 부문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참여 체계에서 누가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지, 누가 소외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는 문화창의부문(CCS)과 문화 거버넌스에서 능동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맥락적 조건을 고찰함으로써 기회와 도전 과제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참여 체계가 국경, 정체성, 그리고 젠더를 넘어 친밀감을 형성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관계 맺는 방식을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다양한 지식 체계(knowledge systems)에 내재한 구조들이 네트워크 구축, 연결, 협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또 문화 작업(cultural work)에서의 참여 모델에 어떠한 영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패널

차이마 람지 자아투트 (이집트)
크리에이티브 인베스트 설립자, 셸터 아트 스페이스 대표

카이사 륀쾨 (핀란드)
핀란드예술위원회 핀란드예술진흥센터 센터장

전유진 (한국)
예술가, 여성을위한열린기술랩 대표

모더레이터/
패널

마우리시오 델핀 (페루/미국)
문화예술정책연구소 공동소장

16:30–18:00 ***병행5_롱테이블***

공통의 기반 모색: 분열된 세계에서 유대감 재구축하기

장소: 아르코미술관 열림 – D1

최근 정치적 변화와 문화 및 소셜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문화적 담론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해되고 있다. 오늘날,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훼손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건전한 토론을 위한 공통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해 참여 체계가 붕괴한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현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열린 대화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집단적 행동은 무엇인가?

이 롱테이블 토론은 발표자와 청중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참여형 대화를 지향하며,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에코 챔버(eco chamber) 현상을 완화하며,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각종 위험과 분열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에 문화 활동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들도 함께 모색한다.

참가자

지크리 라흐만 (말레이시아)
아츠 이퀘이터 동남아시아 예술 검열 데이터베이스 말레이시아 담당 연구원

니우샤 칸모함마디 (스웨덴)
스웨덴예술위원회 예술적 자유를 위한 프로그램 선임고문

로베르트 피아스코프스키 (폴란드)
폴란드 국립문화센터 센터장

퍼실리테이터

미셸 차울라 (캐나다)
캐나다예술위원회 위원장

16:30–18:00 ***병행6_롱테이블***

지식 체계의 회복: 서사의 변혁적 힘

장소: 예술가의집 라운지 롱테이블 – E3

이번 세션에서는 식민주의의 유산을 포함한 지식 체계 내의 위계를 밝혀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와 새로운 관계 형성 방식의 시급한 필요성을 검토한다. 지배적 패러다임(dominant paradigms)과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문화적 서사(cultural narratives)를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을 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현재 문화창의부문(CCS)의 지식 체계는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의견(underrepresented voices)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확장하고 있는가? 원주민 지식(Indigenous knowledge),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s), 학술 연구(academic research), 그리고 학제 간 접근법(interdisciplinary approaches)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 체계는 문화창의부문(CCS)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있는가? 기술은 주체성(agency)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탈식민화(decolonisation)가 미래의 도전과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식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구성할 수 있는가?

참가자

레이 엘씨 (홍콩특별행정구, 중국)
홍콩시티대학교 창의미디어학과 조교수

에바 마리 왕 (필리핀)
HIRAYA 시각장애인콜렉티브 창립자 및 공동조정자

삼바 용가 (잠비아)
잠비아 여성사 박물관 관장 및 큐레이터

퍼실리테이터

팔로마 에스테베스 (칠레/미국)
링컨센터 예술 프로그래밍 디렉터

16:30–18:00 ***병행7_오픈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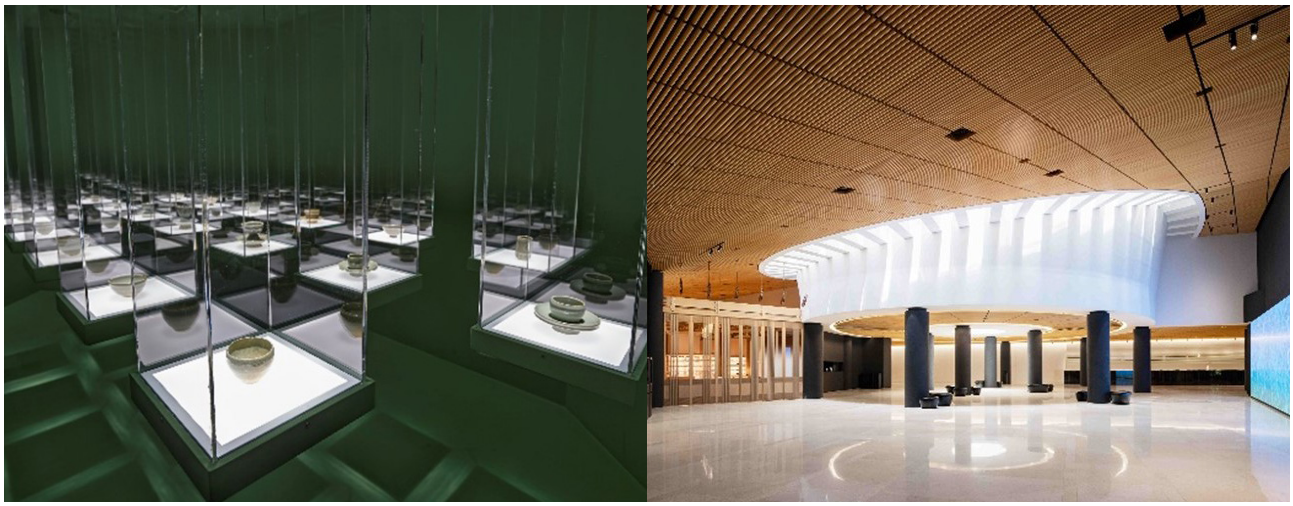
장소: 예술가의집 영아티스트랩–E4

오픈세션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간이다. 총회 개최 4주 전부터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세션 당일에는 최대 8명의 참가자가 페차쿠차 형식(Pecha Kucha)으로 자신의 작업을 발표하고 청중과 교류한다.

퍼실리테이터

다이앤 도드 (영국/스페인)
국제미식·문화·예술·관광연구소 회장, IFACCA 자문위원

5월 28일(수)
1일차 문화프로그램: 리움미술관



ⓒ 리움미술관

리움미술관

서울의 중심, 남산 자락에 위치한 리움미술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쿨하스가 설계한 이곳은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막힘없이 연결하며 그 자체로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여, 한국 전통미술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전 세계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품고 있는 리움은 참석자분들께 풍성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만나 자유롭게 섞이며 새로운 흐름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곳, 리움미술관에서 전통과 현대, 예술과 기술, 동서양 문화의 융합뿐만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확장적 교류를 통해 예술과 문화의 강한 시너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시소개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기간 동안 리움미술관에서는 3개의 전시관에서 각기 다른 전시가 개최됩니다. 고미술 상설관인 M1에는 고려시대 청자에서부터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고서화, 금속공예와 나전칠기까지 한국 전통미술의 모든 시대와 분야를 망라하는 고미술 소장품을 선보입니다. M2에서는 오귀스트 로댕, 마크 로스코, 장욱진, 이우환 등 국제 미술의 흐름을 아우르는 현대미술 소장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그라운드갤러리에서는 현대미술의 고정된 형식을 깨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탐구해 온 세계적 작가 피에르 위그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 《리미널》이 열립니다.

오디오가이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제공

리움스토어

국내외 작가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다양한 현대 공예 작품과 전시 연계 상품, 미술관 기념품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소

리움미술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https://www.leeumhoam.org/leeum

일정

18:00 아르코예술극장 A3 → 리움미술관

18:30 – 20:30 리셉션 및 전시 관람

20:30 리움미술관 → 노보텔 동대문

* 셔틀버스가 제공되며, 자세한 정보는 www.artsummit.org/transport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등록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를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피가 큰 소지품은 물품 보관함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목)
2일차

이튿날 참가자들은 경청하고, 공유하고, 교류하고, 참여하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미래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들을 더 깊이 파고들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현재 여러 분야에 걸쳐 누가 토론을 주도하고 있으며, 누가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둘째 날의 모든 세션에서 강조될 것입니다. 둘째 날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세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대응을 위한 도구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우며,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있어 더 나은 자리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셋째 날 이어질 행동을 위한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2일차 핵심 주제

- 2일 차에는 중대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래지향적 토론과, 지역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화창의부문의 가장 시급한 우려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 주요 이슈로는 기술과 지식 체계의 철학,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문화, 2030년 이후 UN의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 문화를 독립적 목표로 세우기 위한 계기 창출 등이 있습니다.
- 인공지능(AI)의 거버넌스와 기후 행동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도 다뤄질 것입니다.
- 또한, 문화창의부문을 둘러싼 근로조건, 지적 재산권(IP) 및 저작권에 집중합니다. 이 때 토착 및 전통 지식, 집단적 권리, 이동성 및 포용성은 이러한 논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 지속가능성의 핵심으로서 문화 투자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문화를 위한 사례구축에 필요한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음악 산업에도 주목할 예정입니다.
- 중요한 것은 갈등과 취약성이 두드러진 세계 속에서 공감, 연결성, 집단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5월 29일(목)
2일차 세부 프로그램

모든 오전 세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IFACCA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A1, A2, B1, C1에서 진행되는 세션에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TR기호로 표시됩니다.

09:00–9:15 *1일차 돌아보기*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1일차 통합세션과 병행세션의 주요 내용과 통찰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2일차 시작에 앞서, 전일의 논의를 되돌아보며 성찰한다.

프리젠터 **실비 뒤랑 살바띠에라** (코스타리카/미국)
문화정책 및 문화개발 전문가, 컨설턴트, 집단 프로세스 촉진자, 강연자

알라스터 에번스 (영국–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전략기획 디렉터

09:15–10:15 *대담2*

기술혁명 시대에 서사의 다양성 지키기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이 세션에서는 각자의 분야를 대표하는 사상적 리더로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의 예술감독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선구적 미디어 아티스트와 현대 시각예술 분야에서 남아시아 관점을 부각한 업적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재능 있는 큐레이터가 만나 대화를 나눈다. 본 세션은 산업혁명 이래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기술이 세계를 형성해가는 때에, 다음의 질문과 함께 문화, 다양성, 지식 체계의 미래를 고찰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민주화할 수 있을까? 양극화된 세계에서 다양한 서사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역동적인 문화 담론에 기술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심각한 분열과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금, 문화와 기술의 미래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연사 **푸자 수드** (인도)
코지 국제예술가협회 협회장 및 공동 설립자

게어프리트 슈토커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예술감독 및 운영감독

소개 **정병국** (한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0:15–10:45 커피 브레이크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1층 로비– A3, 2층 로비 – A4

10:45–11:35 ***통합2_패널***

문화창의부문(CCS)의 건설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AI 윤리와 거버넌스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날로 발전 속도를 더해 가는 기술시대에 문화창의부문(CCS)의 미래대응(futureproof)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인공지능(AI)의 윤리와 거버넌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문화창의부문이 AI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의성을 지원하면서도 기술 오용의 위험을 방지하고 윤리적으로 기술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AI의 세계에도 도덕적·사회적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가? 아날로그 세계에서 자유와 권리, 책임 간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아가,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사

미카엘라 만테냐 (아르헨티나)
법률가, 연구자, 세계경제포럼 위원회 위원

이진준 (한국)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교수, 작가

모더레이터

오조마 오차이 (나이지리아)
CcHUB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프랙티스 공동 창립자, CcHUB 아프리카 운영 감독

11:40–12:30 ***통합3_패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적 권리와 책임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문화권, 노동권,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뿐만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 살아있는 문화, 전통 지식의 집단적 권리를 포함한 폭넓은 문화 관련 권리의 스펙트럼을 살펴본다. 이 세션은 문화를 하나의 부문이자 사회의 한 차원으로 설정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 과제를 선별한다. 또한, 예술 및 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와 비문화 분야의 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연사

시슬레 제이콥스 (나미비아)
나미비아국립예술위원회 위원장

하이앤 투알리마 (사모아/뉴질랜드)
테 헤렝가 와카–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법학부 수석 강사

모더레이터

캐시 롤랜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아츠 이퀘이터 공동 설립자

12:30–14:00 **점심**

장소: 아르코미술관 – D2

라운드1 **병행세션**

14:00–15:30 ***병행8_패널***

문화 투자모델의 미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이 세션은 문화투자의 미래를 문화창의부문(CCS)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토대로 삼는 관점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10년간 문화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문화창의부문(CCS)을 국가적으로 유지하고 초국가적 문화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투자모델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2024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은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이 이 핵심 분야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지원금 중심의 모델과 경쟁 기반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문화창의부문(CCS)에 대한 지속가능한 공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투자 모델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적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공공–민간 협력의 효과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제도적 틀이나 정책이 필요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생태계 속에서 문화투자의 미래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패널

김해보 (한국)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케드몬 마파나 (탄자니아)
탄자니아국립예술위원회 사무총장

네베나 투도르 페르코비치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문화미디어부 문화개발국장

모더레이터/
패널

애드리언 콜레트 (호주)
호주예술위원회 위원장

14:00–15:30 ***병행9_원형대화(Dialogue Circle)***
과거를 기리며: 함께 귀기울이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대화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A2 TR

이 세션은 지역 원주민 공동체와 다양한 살아있는 문화의 관점에서 지식 체계와 우주관(cosmovisions)을 고찰한다. 위계적인 기존 학회 진행 형식을 취하는 대신, 참여자 및 세 명의 진행자가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다.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서는 서로서로가 연결점을 찾고, 경청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나가며 공유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 부문이 정보 체계의 동질화를 초래하고 있는 오늘날에야말로 다양한 관점과 서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번 세션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문화적 측면과 프로토콜(protocol)을 성찰하고 공유할 것이며, 조상들의 지혜, 문화차원의 수호자와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영위하는 맥락을 조명하고 그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방법론과 실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표현의 다양성을 함양하고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며, 과거와 현재를 기리며, 살아있는 문화들의 가치와 정신, 그리고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 이 세션은 지역 원주민 공동체와 다양한 살아있는 문화의 관점에서 지식 체계와 우주관(cosmovisions)을 고찰한다. 위계적인 기존 학회 진행 형식을 취하는 대신, 참여자 및 세 명의 진행자가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다.

참가자

잉가-릴 순세트 (노르웨이)
노르웨이문화예술위원회 문화유산 및 박물관 총괄

호세 안토니오 안칸 하라 (칠레)
칠레 문화예술유산부 국가문화유산청 국립원주민부담당국 국장 직무대행

파울라 카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뉴질랜드예술위원회 마오리 전략 및 파트너십 담당 수석 관리자

퍼실리테이터

아마레스와르 갈라 (인도/호주)
칼링가 사회과학대학교 및 칼링가 산업기술대학교 부총장, 토착성·포용적 박물관 및 유산학 석좌교수

14:00–15:30 ***병행10_패널***

미래대응(futureproofing)의 실천: 주체성, 접근성, 포용성

장소: 이음센터 아트홀 – B1 TR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최근 디지털 공간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불평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문화창의부문(CCS)과 가상(virtual) 공간 전반에 걸쳐 자원, 대표성, 정보, 플랫폼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확보할 필요가 시급하다. 본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세계적 맥락에서 주체성, 접근성,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해법을 살펴보며, 문화창의부문(CCS)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 정책은 공정한 자원과 기회에의 접근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공동 설계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문제가 사방에 스며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구조적 편향을 해결하고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정책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 문화창의부문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다양한 전문 인력과 공동체가 정책, 실행, 기회의 형성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요구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 세션은 분야 간 논의를 선도하고 선구적 실천을 이끄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패널

구자혜 (한국)
연극 연출자, 극작가, '여기는 당연히, 극장' 대표

아이카 알레미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크리에이티브 인큐베이터 및 본 노매드 대표

소피아 알렉산데르손 (스웨덴)
쉐어뮤직 & 퍼포밍 아츠 대표 및 예술감독

모더레이터/
패널

아비드 후세인 (영국–잉글랜드)
잉글랜드예술위원회 다양성 디렉터

14:00–15:30 ***병행11_패널***

창의적 교차점: 음악 산업이 제공하는 창조경제 전반에 걸친 교훈

장소: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 – C1 TR

음악 산업은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전반에 걸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 세션에서는 음악 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해 온 전략을 다른 문화부문의 미래대응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음악 산업은 최근 음악소비의 중심지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자연히, 알고리즘이 음원 발견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플랫폼과 예술가 간의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뒤따른다. 변화하는 글로벌 음악 산업의 역학은 예술가, 프로듀서, 플랫폼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 또는 어려움으로 작용하는가? 인공지능(AI)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신기술은 스트리밍, 라이선싱, 라이브 공연 등의 기존 수익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정한 보상, 권리 배분,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지속가능한 음악 생태계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고 음악의 포용성, 접근성, 문화적 · 경제적 동력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해 주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과정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가?

패널

셰인 샤피로 (영국–잉글랜드)
음악생태계센터 센터장

심희진 (한국)
버진뮤직그룹 한국 대표

산티아고 알파로 로톤도 (페루)
사회학자, 문화정책 전문가

모더레이터/
패널

카디자 엘 벤나위 (모로코/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 총괄

14:00–15:30 ***병행12_롱테이블***

세계적 연결: 초국가적 문화교류와 이동성 재고

장소: 아르코미술관 열림 – D1

이 롱테이블 세션에서는 전 세계에 걸친 아이디어, 문화 전문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과 이동을 평가하며, 초국가적 문화 협력을 위한 기회와 도전 과제를 함께 다룬다. (문화 교류가) 진전을 보인 시점은 언제이며, 여전히 남아 있는 가시적 · 비가시적 장벽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은 무엇인가?

이 논의는 참여형 대화를 촉진하여 발표자와 청중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예술가와 문화재의 국경 간 공정한 이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국지적 제도 차원에서 알아본다. (문화 전문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가? 국제 협력을 형성하는 권력 역학은 무엇이며, 보다 공정한 문화교류를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이동성 증진과 환경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며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열된 세계 속에서 더 깊은 문화 간 이해와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예술가, 예술작품의 국경 간 이동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참가자

데레카 델레보-그랜트 (바하마)
바하마 청소년·스포츠·문화부 문화국장

디에고 멘카로니 (이탈리아/미국)
치비텔라 라니에리 재단 레지던시 디렉터

만카 A. 치핀디 (잠비아)
잠비아국립예술위원회 위원장

퍼실리테이터

마리 르 수르 (프랑스/벨기에)
온 더 무브 사무국장

14:00–15:30 ***병행13_롱테이블***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문화 노동자를 위한 노동 조건의 존엄성 보장

장소: 예술가의집 라운지 롱테이블 – E3

세계 곳곳의 예술가들과 문화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임금 격차, 제한된 사회보장제도 제공 등의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여성들이 문화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 격차의 해소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문화 노동자의 사회적 ·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공 정책이 부재한 현실은 이 부문에서의 경력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인재 유출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같은 상황의 악화를 초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건 이상의 문화부문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문화 노동자들이 겪는 이러한 불안정성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시민사회, 고용주들은 문화 노동자들을 위한 강력한 사회보장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과 삶 균형을 보장해주는 노동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가? 젠더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적 혁신으로 어떠한 사례들이 존재하는가? 국제적 제도들은 팬데믹 이후의 현실과 새롭게 떠오르는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문화 노동자들의 구조적 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참가자

에두아르도 사라비아 (콜롬비아/독일)
경제학자, EU/유네스코 전문가 그룹 위원

피나 소 (캄보디아)
캄보디아 창의산업개발옹호협회 협회장

홍기원 (한국)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퍼실리테이터

카이사 라빈 (스웨덴)
스웨덴예술위원회 위원장

14:00–15:30 ***병행14_오픈세션***

장소: 예술가의집 영아티스트랩 – E4

오픈세션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간이다. 총회 개최 4주 전부터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세션 당일에는 최대 8명의 참가자가 페차쿠차 형식(Pecha Kucha)으로 자신의 작업을 발표하고 청중과 교류한다.

퍼실리테이터

히로코 츠보이–프리드먼 (일본/스위스)
유엔/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전문가그룹 구성원, 컨설턴트

15:30–16:00 **커피 브레이크**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1층 로비– A3, 2층 로비 – A4

라운드 2 **병행 세션**

16:00–17:30 ***병행15_패널***
포스트-2030 유엔 의제에서의 독립적인 문화 목표 수립: 경로와 전망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2022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MONDIACULT 회의 폐막에 즈음하여, 전 세계 문화부 장관들은 「문화 선언문」을 채택하고 문화를 전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로 공식 인정하였다. 이어서 2024년 유엔(UN) '미래 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 회원국들은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을 채택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 정책 전반에 문화의 통합을 촉구하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패널토론에서는 유엔의 2030년 이후 의제(Post-2030 Agenda)에 문화를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하기 위한 경로를 모색한다. 우리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이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혁신적인 협력 방식이 요구되는가? 이와 같은 안건들을 중심으로, 본 세션에서는 문화를 글로벌 개발 정책의 중심에 위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경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패널

저스틴 오코너 (호주)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문화경제학 교수

응우옌 프엉 화 (베트남)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협력국 국장

파스 포르탈레스 (칠레/프랑스)
유네스코 문화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하스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울라노스키 (스페인)
스페인 문화부 문화권리국장

모더레이터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칠레/호주)
IFACCA 사무총장

16:00–17:30 ***병행16_워크숍***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A2 TR

이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문화 분야의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범위를 살펴본다. 이러한 지식은 효과적인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민간 분야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우선순위를 옹호하고, 영향력을 입증하며, 해당 분야의 성장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인구 조사, 설문 조사, 행정 기록, 빅데이터 등 여러 가지의 데이터 소스를 다양한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고, 데이터 분석 시 이러한 소스의 관련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협업형 실습을 통해 문화창의부문(CCS)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각국이 어떻게 생성하는지와 이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참가자는 데이터를 실질적인 통찰력으로 전환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퍼실리테이터

다이애나 레이 (콜롬비아/캐나다)
정치학자, 컨설턴트

에이브릴 조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란드대학교 예술대학 문화기업 및 정책 유네스코 석좌교수

16:00–17:30

병행17_패널
온고지신: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와 유산 보존하기
장소: 이음센터 아트홀 – B1 TR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문화창의부문(CCS)의 미래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절차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핵심 과제이다. 문화유산은 문화 정체성, 공동체의 기억, 생활 문화, 전통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견고한 기반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다양한 유산과 살아있는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정책적 약속이 필요하며, 기술 중심 사회에서 세대 간 문화 전승과 연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다양한 언어를 활성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향후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변화 속에서 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참여 체계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본 패널토론은 새로운 세계를 수용하면서도, 과거와의 강한 연결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한다.

패널

김희선 (한국)
국민대학교 교수,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움베르토 로페스 라 베야 (파라과이)
파라과이 문화청 국무실장

버넌 조셉 코르푸즈 (필리핀)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보

모더레이터/
패널

크리스토퍼 와이워리 (솔로몬제도/바누아투)
멜라네시아 선봉그룹 사무국 수석행정고문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리자 대행

16:00–17:30 ***병행18_패널***

문화 거버넌스의 탈중앙화: 정책과 실천의 전환

장소: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 – C1 TR

탈중앙형 정책 수립은 보다 포용적이고 맥락에 민감한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주체들이 문화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집행을 주도하며 문화발전을 위한 재원을 관리·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나아가 이러한 모델은 정부의 모든 층위에서 다자 이해관계자 기반의 공동 의제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세션에서는 탈중앙화 정책이 어떻게 지역 주체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맥락에 맞는 문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는지 살펴본다. 새로운 모델의 창출, 중앙집권형 제도의 일부 기능 분산, 혹은 지방 의회와 민간 부문의 권한 강화 등이 그 예시이다. 탈중앙화 모델은 어떻게 다양한 지역 간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지역 공동체가 문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모든 주민의 유의미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제도적 틀로는 무엇이 있는가? 또, 기술은 분산형 문화 거버넌스에서 지식 공유와 협업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

패널

질 도레 (캐나다)
시나르(CINARS) 대표

앙헬 모레나 (콜롬비아)
콜롬비아 중앙은행 혼다 문화기관 관리자

조정윤 (한국)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모더레이터/
패널

줄리 디포파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국립예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16:00–17:30 ***병행19_롱테이블***

갈등의 시대, 문화의 역할: 공감과 연대를 향하여

장소: 아르코미술관 열림 – D1

이 롱테이블 세션은 갈등과 불안정성이 만연한 세계 속에서 연결성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열린 대화에 참가자들을 초대한다. 공동체의 분열이 점점 심각해지는 복잡한 시대에 문화는 한 부문이자 사회의 한 차원으로서 갈등에 따르는 회복력, 유대감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 문화는 어떻게 갈등을 전환하고, 분열된 세계 속에서 연대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문화창의부문(CCS)은 이처럼 산재한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문화 부문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긴장과 균열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 같은 분열을 넘어서는 대화를 위한 안전한 공간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공동의 미래를 상상하고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열을 넘어서는 공감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가자

로이신 맥도너 (영국-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 위원장

압둘라 알카프리 (레바논/벨기에)
에티자핫-독립문화 공동설립자 및 대표

준 에이 퓨 (미얀마)
예술가, 예술치료사, 메콩문화허브 프로그램 매니저

퍼실리테이터

다리나 지보흘랴도바 (우크라이나)
KU Leuven 연구관리자

16:00–17:30 ***병행20_롱테이블***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실천: 기후 행동과 지속가능성에서 문화의 역할

장소: 예술가의집 라운지 롱테이블 – E3

전통 지식, 문화유산, 창의적 표현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문화는 회복력을 키우고, 적응을 도우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여러 문화유적지, 이와 관련한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는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 사막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처해 있다.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은 점점 더 환경을 고려한 실천을 채택함으로써, 문화부문의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미래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행동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기후 위기 의제에서 문화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후 의제는 문화예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전통 지식과 문화적 실천은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어떻게 통합되어야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가? 문화의 역할을 전 지구적 기후 전략 속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옹호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참가자

지미 사비 (세이셸)
세이셸국립예술공예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한국)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수재나 탄템사 (태국/미국)
크리에이티브 마이그레이션·방콕 1899 설립자 및 대표

퍼실리테이터

프란시스 C. 코야 바카우타 (피지)
퍼시픽커뮤니티 문화개발팀 리더

16:00–17:30 *병행21_오픈세션*

끝나지 않은 과제

장소: 예술가의집 영아티스트랩–E4

이 세션에서는 사회자의 진행 아래 해결이 시급하면서도, 아직 다뤄지지 않은 주제를 중심으로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세션은 참가자 주도의 자발적인 대화를 장려하며, 총회 기간 동안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퍼실리테이터 **토니 아타드** (몰타)
컬처 벤처 창립자

5월 29일(목)
2일차 문화프로그램: 잔치



사진: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 김근우

잔치

‘잔치’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음식을 마련하여 손님을 접대하고 함께 즐기며 기쁨을 나누는 한국의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 불면, 한국에서는 한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단오’ 잔치가 열렸습니다. 양기가 가장 강하다는 이 날, 농부들은 힘겨웠던 모내기를 마친 뒤 한자리에 모여 풍년을 기원하고, 서로의 건강을 바라며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오의 잔칫날을 재현하며, 서로를 독려하고, 다가올 내일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몸을 보양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선조들이 즐겼던 음식을 테마로 한 요리들과 함께, 공기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같은 민속놀이를 준비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를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잔치에는 장르를 넘나들고,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선보이는 현대무용 단체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함께합니다.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이어지는 연결감, 그리고 서로를 북돋우는 문화와 예술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감각적인 무대를 만들어내는 현대 무용단입니다. 2008년, 안무가 김보람과 무용수 장경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Higher Power, GOOD FEELiNGS 뮤직비디오 협업을 통해 주목받았으며, BMW, 구찌 등과의 협업으로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늘 새로운 언어로 무용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소

스테이지28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61길 105)

일정

17:30 아르코예술극장 A3 → 스테이지28

18:30–19:00 리셉션

19:00–21:00 잔치 및 공연

21:00 스테이지28 → 노보텔 동대문

* 셔틀버스가 제공되며, 자세한 정보는 www.artsummit.org/transport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우니 셔틀버스를 반드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장

편한 복장

*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안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등록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를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행사장 내 물품보관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개인소지품 분실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금)
3일차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함께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합니다. 미래를 위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3일차 핵심 주제

-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모두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토의합니다.

- 참가자들은 이번 총회에서 얻은 교훈을 확인하고, 타협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 합의하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확인합니다.

- 문화예술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정부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것입니다.

5월 30일(금)
3일차 세부 프로그램

모든 오전 세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IFACCA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A1, A2, B1, C1에서 진행되는 세션에는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TR기호로 표시됩니다.

09:00–09:15 ***2일차 돌아보기***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2일차 통합세션과 병행세션의 주요 내용과 통찰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3일차 시작에 앞서, 전일의 논의를 되돌아보며 성찰한다.

프리젠터

실비 뒤랑 살바띠에라 (코스타리카/미국)
문화정책 및 문화개발 전문가, 컨설턴트, 집단 프로세스 촉진자, 강연자

알라스터 에번스 (영국–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전략기획 디렉터

09:15–10:00 ***통합4_청중 토론***
청중의 관점: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이 세션은 문화예술 미래를 형성하는 여러 역할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평과 토론을 펼치는 청중토론의 장이다. 이번 총회의 세 가지 핵심 주제, 즉 지식 체계와 주체성, 참여 체계와 유대감, 그리고 디지털 체계와 기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두 명의 사회자가 진행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의 관점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을 공유하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총회 기간 동안 지식 체계에 대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서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모색한다. AI의 설계, 개발, 배포에서 문화창의부문(CCS)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국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처한 환경과 당면 과제를 고려할 때, 점점 취약해지는 세상에서 상호 문화교류와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퍼실리테이터

안드레스 그리브니코우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친구협회 전무이사, 창조산업 전문가

미셸 차울라 (캐나다)
캐나다예술위원회 위원장

10:00–10:30 ***커피 브레이크***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1층 로비– A3, 2층 로비 – A4

10:30–10:35 ***인사말***
지역과 국제사회 연결을 위해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연사

김갑수 (한국)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회장

10:35–12:00 ***통합5_패널***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최종 세션에서는 지난 이틀 간의 주요 쟁점들과 청중토론에서 다룬 실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돌아보는 자리이다. 가장 시급한 사안들과 실질적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논한다. 문화가 사회의 한 부문이자 차원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다양성을 갖춘 미래 설계를 바탕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화예술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촉매제로서 온전히 인정받도록 하려면 문화 생태계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어떤 관점들을 이러한 대화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가? 위태로운 세계 속에서 문화창의부문(CCS)의 미래대응을 위한 공감, 열린 대화, 집단적 행동을 장려하는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세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상기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핵심 과제들을 파악하고, 개인과 기관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해결책과 이후의 실천 단계를 함께 모색한다. 본 패널은 공통된 의제를 공유하면서도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그려볼 것이다.

연사

아탕 L.S. 아놀드 (보츠와나)
더 스페이스 보츠와나 아트 갤러리 & 크리에이티브 허브 설립자 및 큐레이터

하스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울라노스키 (스페인)
스페인 문화부 문화권리국장

에르네스토 오또네 라미레즈 (칠레) *영상
유네스코 문화담당사무총장보

에밀 카이루아 (쿡제도)
쿡제도 문화개발부 장관급 차관

조 쿠카타스 (말레이시아)
인스턴트 카페 극단 예술감독

모더레이터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칠레/호주)
IFACCA 사무총장

12:00 – 12:30 ***폐회***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A1 TR

연사

크리스틴 다니엘슨 (노르웨이)
IFACCA 이사장, 노르웨이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한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모더레이터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칠레/호주)
IFACCA 사무총장

12:30 – 14:00 **폐막오찬**

장소: 마로니에공원 – C2

5월 30일(금)
3일차 문화프로그램: 폐막오찬

대학로에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선보이는 아르코예술극장, 동시대 시각예술과 담론을 생산하는 아르코미술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창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예술가의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여러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소극장으로 둘러싸인 마로니에공원이 위치한 이곳은 대한민국 공연예술 창작의 중심지입니다. 대학로는 공연예술계를 넘어, 유명 배우를 배출하고 연극, 웹툰, 드라마, 영화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대중산업에 크게 기여하는 등 문화예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던 젊음과 낭만의 거리였던 대학로는 민주주의를 갈망한 학생들에게 시위와 저항의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함에 따라 연극,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장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로는 장애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 창작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과 예술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며, 이곳은 단단한 문화예술의 터전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세계총회에서의 3일간의 열띤 논의가 세계 곳곳의 문화예술 현장으로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누는 음식과 이야기들을 통해, 각국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지 체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한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듯,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한 끼가 우리가 공유한 대화와 영감의 연장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맛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이 순간을 함께 즐기며, 서울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뜻깊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장소

마로니에공원 C2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4

일정

12:30–14:00 폐막오찬

14:00 아르코예술극장 A3 → 노보텔 동대문

* 셔틀버스가 제공되며, 자세한 정보는 www.artsummit.org/transport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를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장 내 물품보관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개인소지품 분실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참석 안내





사진: 마로니에 공원 일대, 아르코예술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세계총회 주요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

총회의 주요 행사 장소는 아르코예술극장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르코예술극장은 마로니에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연예술 작품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모든 주요 총회 세션은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진행되며, 일부 병행세션은 마로니에공원 내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집, 아르코예술극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아르코예술극장 (서울시 종로구 8길 7)
- 아르코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 예술가의집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 이음센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
-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4)
- 마로니에공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4)

행사 등록

문화예술세계총회 참석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공식 호텔 혹은 행사장에 도착하면, 등록데스크에서 이름표 및 총회 관련 정보들이 담긴 등록 가방을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표를 소지하지 않은 참석자는 모든 행사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이름표를 분실한 경우 등록데스크 혹은 안내데스크에서 재발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자는 개막 만찬, 리움미술관, 잔치, 폐막 오찬에만 참석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세계총회의 본 행사인 통합 및 병행세션 프로그램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등록데스크 운영시간 및 장소

5월 25일(일)	10:00–18:00	노보텔 동대문 1층 로비
5월 26일(월)	07:00–18:00	노보텔 동대문 1층 로비
5월 27일(화)	09:00–17:00	노보텔 동대문 1층 로비
	18:00–20:00	DDP 아트홀 2관
5월 28일(수)	08:00–17:00	아르코예술극장 A0
5월 29일(목)	08:00–17:00	아르코예술극장 A0
5월 30일(금)	08:00–13:00	아르코예술극장 A0

안내데스크 운영시간 및 장소

5월 28일(수) 08:00–18:00 아르코예술극장 1층 로비
5월 29일(목) 08:00–18:00 아르코예술극장 1층 로비
5월 30일(금) 08:00–15:00 아르코예술극장 1층 로비

인터넷

문화예술세계총회 행사장 내에서는 무료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사장 안내데스크 및 건물 곳곳에 있는 안내표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문화예술세계총회 등록자에게는 아래 사항이 제공됩니다.

5월 27일(화)
개막 만찬: 한식 정찬 코스, DDP 아트홀2관

5월 28일(수)
커피 브레이크: 커피 및 다과, 아르코예술극장 A3, A4
점심: 한식 보자기 도시락, 아르코미술관 D2
문화프로그램: 리셉션, 리움미술관

5월 29일(목)
커피 브레이크: 커피 및 다과, 아르코예술극장 A3, A4
점심: 양식 피크닉 도시락, 아르코미술관 D2
잔치: 잔치 음식, 스테이지28

5월 30일(금)
커피 브레이크: 커피 및 다과, 아르코예술극장 A3, A4
폐막오찬: 분식, 마로니에공원 C2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기간 내 식사는 등록 시, 제출해주신 식이유형에 따라 제공됩니다.

보안 및 안전

참여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총회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안전과 보안사항이 점검될 예정입니다. 다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자의 신원 확인은 행사 기간 내내 진행될 예정이며, 이름표를 소지한 사람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름표를 분실한 경우, 등록데스크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식 일정 외 비상상황 대응 안내

긴급상황 시 신고번호는 경찰은 112, 소방 및 구급차는 119입니다. 해당 번호로 외국인이 전화를 걸 경우, 통역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3자 통화를 통해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근성

접근성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등록데스크 또는 총회 기간 내 아르코예술극장1층 로비에 위치한 안내데스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총회 기간 중에는 촬영이 진행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노출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행사장 도착 시 등록데스크에 있는 스태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호텔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의 공식 호텔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입니다. 이 호텔은 동대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중심 시내와 가깝고 도보거리 내에는 DDP(동대문디자인 플라자)와 동대문시장이 있습니다. 호텔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하철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을지로4가, 종로5가, 동대문역 등 다른 지하철역도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238
https://all.accor.com/hotel/A5U6/index.ko.shtml

교통

모든 문화예술세계총회 등록자에게는 공식 호텔인 노보텔 동대문에서 행사장까지의 왕복 셔틀버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를 www.artsummit.org/transport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이동 방법

인천국제공항(ICN)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대한민국 내 가장 큰 공항이자 주요 국제 노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공항철도(AREX), 서울 지하철, 공항 리무진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해 서울 시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공항은 김포국제공항(GMP)으로 시내 중심부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습니다.

공항

한국의 주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참여자는 공항과 호텔 혹은 행사장 간의 이동수단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요금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공항 리무진 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서울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공항철도(AREX)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6001번 공항버스는 약 18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공식 호텔인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제2터미널에서의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40분입니다.

기차 – 지하철/대중교통

공항철도(AREX) 표지판을 따라 기차 승강장으로 가면, 인천공항의 모든 터미널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공항철도(AREX)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ICN)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공항철도(AREX) 승강장 근처에 있는 자동 발권 기계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공항철도(AREX)로 약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역에서 공식 호텔(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까지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는 약 20분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면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현금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통카드를 구입하시길 권장합니다. 교통카드는 공항, 주요 기차역, 또는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터미널 외부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에 있는 택시들은 특정한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영어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스마트 기기의 번역 앱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요금은 거리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및 서울 소개



사진:대한민국, 서울 © 서울관광아카이브, 아카이브 번호 9116

대한민국 및 서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중심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더불어, 현대와 전통 건축이 혼합된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이 도시는 K-pop과 드라마, 영화,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food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도시, 서울과 대한민국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
https://korean.visitseoul.net/index

언어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입니다.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70만 명으로, 수도인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는 약 9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음식

대한민국 전역의 음식 위생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많은 카페 및 식당에서는 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맛을 선보이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떡볶이, 라면, 김밥과 같은 한국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서울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

대한민국의 주요 종교는 기독교,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과 같은 한국 전통 신앙입니다. 대체로 많은 한국인들은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나, 다양한 전통을 혼합하여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후 및 날씨

대한민국은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춥고 맑은 겨울의 날씨는 덥고 비가 오는 습한 여름과 대비됩니다. 5월 하순에는 최저 온도 14도에서 최고 온도 27도로, 날씨는 온화하지만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세한 일기예보는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ather.go.kr/w/index.do

통화

대한민국의 통화는 원(KRW)입니다. 일반적인 지폐 단위는 1,000원, 5,000원, 10,000원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현금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장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ATM 기기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현금 인출도 편리합니다.

시간

대한민국은 하나의 표준 시간대인 한국 표준시(KST)를 사용하며, UTC/GMT보다 9시간 빠릅니다.

전력

대한민국의 표준 전압은 220V이며, 주파수는 60Hz입니다. 플러그 유형 C와 F를 사용하기에 외국 기기는 플러그 어댑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위한 선불 SIM카드는 편의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는 4G/5G 데이터가 원활하게 사용됩니다. 지하철역과 카페를 포함한 많은 장소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물을 무료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흡연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 대중교통 등 대부분의 공공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흡연을 원하시는 경우, 지정된 실외 흡연 구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대한민국에서는 차량이 도로의 오른쪽 방향으로 운행됩니다.

팁 문화

음식점, 호텔 등의 가격에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팁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티켓

대한민국에서는 연장자나 권위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양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예의이며, 이는 존경을 표하는 중요한 한국의 예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집, 사찰, 게스트하우스를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람을 맞이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목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서울 내 문화관광 정보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시에서 (구)풍문여고 건물 5개동을 리모델링하여 건축한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 박물관으로 2021년 7월 개관하였습니다.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2만여 점의 공예품과 공예자료를 수집, 소장하고 있으며, 공예역사와 기법, 주요 공예품을 다룬 전시와 연구,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공예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5월 27일(화) 14:00–16:30
장소: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종로구 율곡로 3길 4)
신청방식: 총회 등록자에 한하여 사전 신청

https://craftmuseum.seoul.go.kr/eng/main

하이커 그라운드

하이커 그라운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K-컬처 및 K-콘텐츠 체험 홍보관으로 직접 춤을 추며 K-팝 뮤직비디오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편의점, 노래방, 스트리밍 스튜디오 등 다양하고 트렌디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숨겨진 한국의 지역 관광지과 로컬 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지역축제 등 일상을 벗어나 다이나믹하고 위트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직접 관람하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정: 5월 27일(화) 14:00–16:30
장소: 하이커그라운드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5층)
신청방식: 총회 등록자에 한하여 사전 신청

https://hikr.visitkorea.or.kr

예술의 전당 오페라 <물의 정령>

1988년 음악당과 서울서예박물관 개관, 1990년 한가람 미술관과 예술자료관, 1993년 오페라하우스 완공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춘 예술의전당은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 중 하나입니다. 제작극장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2025 예술의전당 신작 오페라 〈The Rising World: 물의 정령〉이 오는 5월 세계 초연됩니다. 2024년 <오텔로>의 성공적인 오페라 기획에 이어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영어 오페라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정: 5월 31일(토) 19:30
러닝타임: 140분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장소: 예술의전당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신청방식: 총회 등록자에 한하여 사전 신청
* 셔틀버스 미운행

https://www.sac.or.kr

2025년 APE CAMP – 아르코 예술기술융합 국제 컨퍼런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에이프캠프(APE CAMP)는 '예술가, 프로듀서, 기술자 100인이 모여 융합적 DNA를 가진 유인원(APE)을 발굴해가는 플레이그라운드' 라는 콘셉트로 2022년 신설되었습니다. 예술기술융합 국제 컨퍼런스는 APE CAMP 연계 행사로, 세계 아트앤테크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예술가, 콜렉티브, 기업 등 핵심 주체들이 보유한 주요 창제작 사례와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비전, 융합과학 연구자의 관점 등을 함께 다룹니다.

일정: 5월 24일(토) 14:00–17:20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서울시 종로구 8길 7)
예매 : 전석 10,000원

https://www.arko.or.kr/eng

국립현대무용단 <우리는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2010년 창단한 국내 유일의 국립현대무용단체로, 창작역량을 지닌 예술가들과 함께 춤을 통해 동시대의 역사와 사회,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한국적 컨템포러리 댄스를 지향합니다. 2025년 시즌 두 번째 프로그램인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국내 안무가들이 한데 모여 만든 창작 작품입니다. 각 안무가가 기존 작품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장면들을 소환해, 창작자들의 내면적 가치와 현실적 문제를 몸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일정: 5월 23일(금)–5월 25일(일)
금요일 19:30 토–일요일 15:00
관람시간: 60분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매: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https://www.sac.or.kr

모두예술극장 <햄릿>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예술인의 창작·육성·교류 활동을 위해 조성된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으로 물리적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창작의 과정·공연·운영 서비스 전반에 걸쳐 편의성과 접근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모두예술극장 기획 초청 공연인 <햄릿>은 다운증후군 배우 8명이 무대에 올라, 자유롭게 각색된 <햄릿>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좌절을 이야기합니다.

일정: 5월 23일(금)–25(일)
금요일 19:30 토–일요일 15:00
관람시간: 95분
관람연령: 15세 이상
장소: 모두예술극장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7)
언어: 스페인어 (한글 자막)
예매: 전석 30,000원

https://www.moduarttheater.or.kr

좋은 공연 안내센터

마로니에공원 내 위치한 좋은 공연 안내센터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에 대한 소개 및 할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공연 티켓을 예매 또는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늘의 할인공연'에 등록되어 있는 당일 공연의 경우 관람료의 최대 50%까지 할인 받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좋은 공연 안내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4 마로니에공원)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 – 20:00 / 월요일 휴무

https://www.daehakroticket.com

경복궁

경복궁(景福宮)은 1392년 조선 건국 후 1395년에 창건한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경복'의 이름에는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다섯 궁궐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조선왕조의 정치적 이상과 뛰어난 건축 기술로 구현된 가장 격조 높은 궁궐입니다.
경복궁 내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왕실 가족의 생활상,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일상과 민속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치: 경복궁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시간: 매일 09:00–18:00 / 화요일 휴무

https://royal.khs.go.kr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는 수천년의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7개의 상설전시장에서는 시대와 주제별로 구석기시대의 소박한 손도끼부터 삼국시대의 화려한 금관,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의 회화, 근대의 사진까지 다양한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유의 방'에서는 대한민국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위치: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수, 토요일 10:00–21:00

https://www.museum.go.kr/ENG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분원으로 동시대 현대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동시대 현대미술을 조명하는 다채로운 전시와 다원예술, 융복합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호주 출신 작가 론 뮤익의 대규모 개인전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위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수, 토요일 10:00–21:00

https://www.mmca.go.kr/eng

남산서울타워

남산서울타워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남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산 262m 정상에 위치한 높이 236.7m의 탑으로, 해발 480m 위치에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전망을 제공하며 특히 야경 명소로 유명합니다.

위치: 남산서울타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운영시간: 평일 10:00–22:30, 주말/공휴일 10:00–23:00

https://www.nseoultower.co.kr/eng

한강 유람선

한강유람선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1986년 첫 취항 이후 현재 여의도와 잠실을 중심으로 2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낮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부터, 반포대교 달빛무지개 분수와 함께하는 야경 코스, 감미로운 재즈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밤 프로그램까지 한강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유람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위치: 한강 유람선 여의도 선착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
운영시간: 11:00–22:00

https://www.maketicket.co.kr/elandcruise

버스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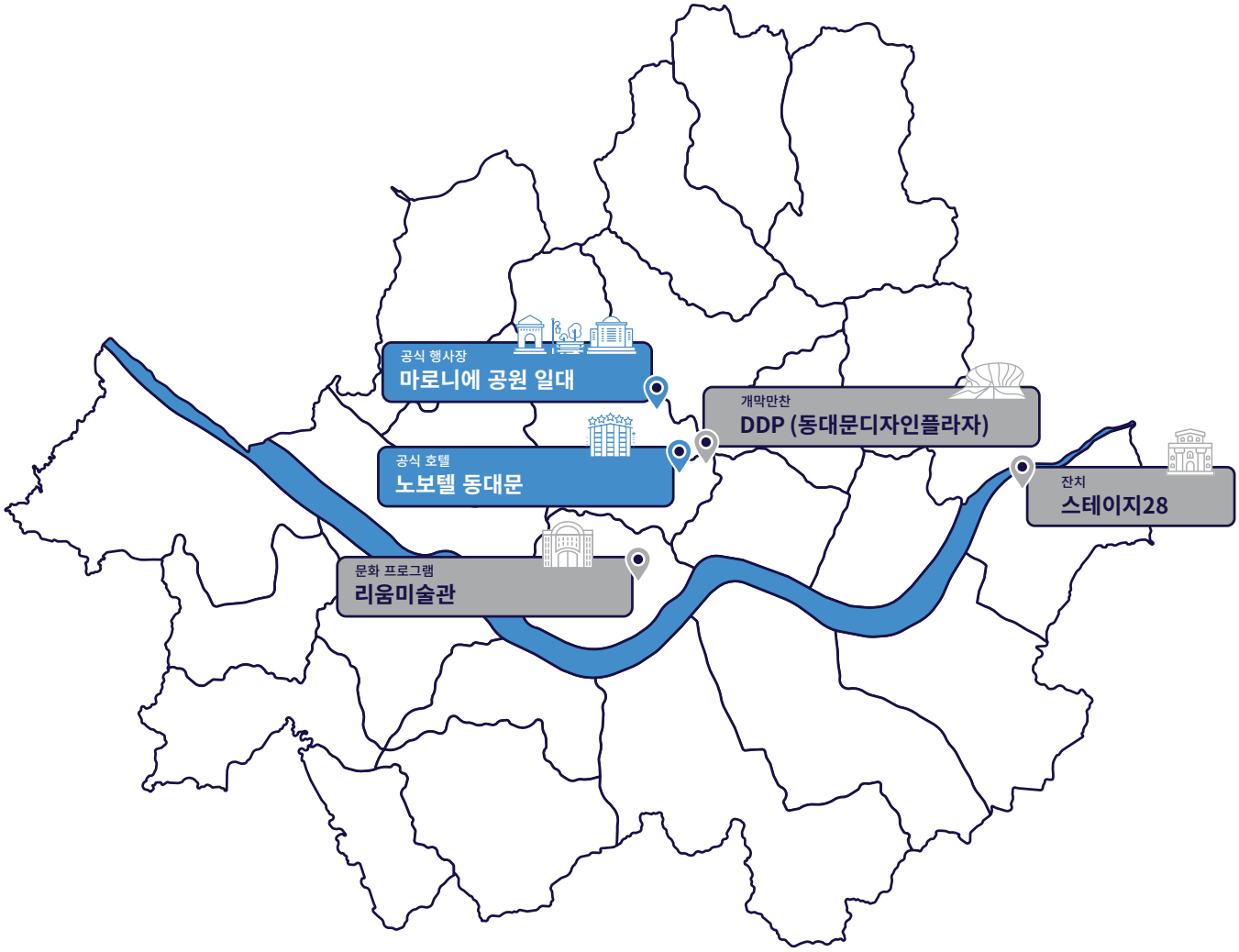
모든 공식 행사에는 행사 장소와 공식호텔인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간 무료 교통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시간표는 프로그램북 제작 시점에 확정된 공식 총회 프로그램에 대한 버스 운행 시간표이오니, 자세한 교통편 정보는 www.artsummit.org/transport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행사	출발	도착
5.27(화)	14:00	사전 총회 프로그램	노보텔 동대문	서울공예박물관
				하이커그라운드
	16:00		서울공예박물관	노보텔 동대문
			하이커그라운드	
	18:15	개막만찬	노보텔 동대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21:30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노보텔 동대문
5.28(수)	08:00	문화예술세계총회	노보텔 동대문	아르코예술극장 A3
	18:00	문화프로그램: 리움미술관	아르코예술극장 A3	리움미술관
	20:30		리움미술관	노보텔 동대문
5.29(목)	08:00	문화예술세계총회	노보텔 동대문	아르코예술극장 A3
	17:30	잔치	아르코예술극장 A3	스테이지28
	21:00		스테이지28	노보텔 동대문
5.30(금)	08:00	문화예술세계총회	노보텔 동대문	아르코예술극장 A3
	14:00	폐막오찬	아르코예술극장 A3	노보텔 동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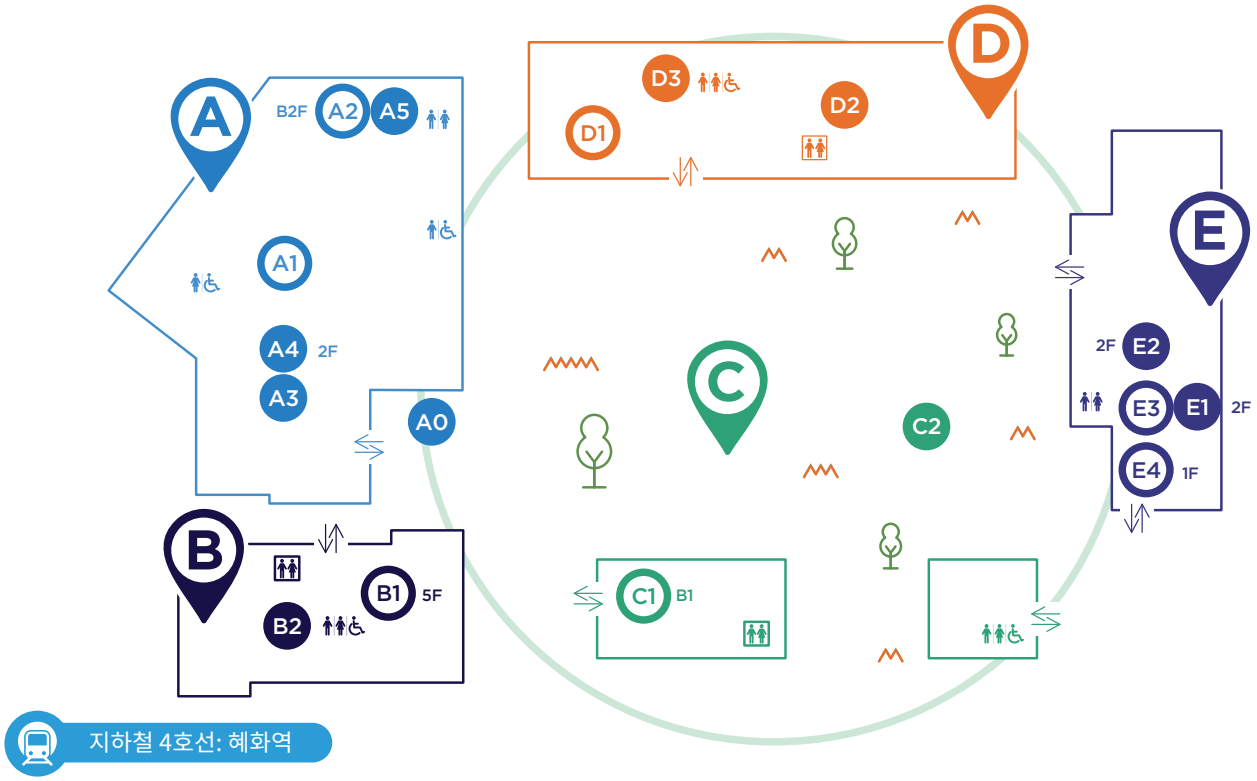
* 교통량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행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셔틀버스 운행노선 및 정차장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도
서울


공식 행사장
마로니에 공원 일대
개막만찬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식 호텔
노보텔 동대문
잔치
스테이지28
문화 프로그램
리움미술관


인천공항↔공식 행사장 1시간 30분 소요
공식 행사장
인천공항

지도
마로니에공원 일대



주요 행사 장소

기타 공간

A 아르코예술극장

B 이음센터

C 마로니에공원

D 아르코미술관

E 예술가의집

등록데스크	A0
안내데스크	A3
물품보관소	A3
커피 브레이크	A3 A4
셔틀버스 대기 장소	A3
네트워킹 스페이스	A4 E2
연사 전용 라운지	A5
기도실	B2
폐막오찬	C2
점심식사 장소	D2
응급처치실	D3
조용한 휴식 공간	E1

대담(In Conversation) A1 TR

1. 저항, 회복력, 대응, 갱신
2. 기술혁명 시대에 서사의 다양성 지키기

통합(Plenary) A1 TR

1.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
2. 문화창의부문(CCS)의 건설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AI 윤리와 거버넌스
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적 권리와 책임
4. 청중토론(Open Floor) - 청중의 관점: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5.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

월드카페(World Café) A1 A2 TR

1.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위한 협력적 경로 구축
2. 분열과 에코 챔버(eco chamber)를 넘어선 대화 촉진
3. 형평성, 정의, 문화적 권리 증진
4.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와 원주민 지식 체계의 존중
5. 인간과 자연의 연결성 회복과 기후 위기 대응
6. 인공지능(AI), 디지털 현실, 권력 역학 다루기
7. 문화창의부문(CCS)의 공정하고 존엄한 노동 환경 보장
8. 글로벌 거버넌스 및 초국가적 문화 관계 강화

병행(Parallel Sessions)

1. 한국 예술과 문화의 탄력적 미래상: 비판적 고찰 - 패널 A1 TR
2. AI 해독: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창의성과 문화 서사 - 워크숍 A1 TR
3.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길을 찾다: 지역적 파급효과 매핑 - 패널 B1 TR
4. 문화적 역량 개발: 문화 생활에의 참여 증진 - 패널 C1 TR
5. 공통의 기반 모색: 분열된 세계에서 유대감 재구축하기 - 롱테이블 D1
6. R지식 체계의 회복: 서사의 변혁적 힘 - 롱테이블 E3
7. 오픈세션 E4

8. 문화 투자모델의 미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 패널 A1 TR
9. 과거를 기리며: 함께 귀기울이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대화 - 원형대화 A1 TR
10. 미래대응(futureproofing)의 실천: 주체성, 접근성, 포용성 - 패널 B1 TR
11. 창의적 교차점: 음악 산업이 제공하는 창조경제 전반에 걸친 교훈 - 패널 C1 TR
12. 세계적 연결: 초국가적 문화교류와 이동성 재고 - 롱테이블 D1
13.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문화 노동자를 위한 노동 조건의 존엄성 보장 - 롱테이블 E3
14. 오픈세션 E4

15. 포스트–2030 유엔 의제에서의 독립적인 문화 목표 수립: 경로와 전망 - 패널 A1 TR
16.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 - 워크숍 A1 TR
17. 온고지신: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와 유산 보존하기 - 패널 B1 TR
18. 문화 거버넌스의 탈중앙화: 정책과 실천의 전환 - 패널 C1 TR
19. 갈등의 시대, 문화의 역할: 공감과 연대를 향하여 - 롱테이블 D1
20.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실천: 기후 행동과 지속가능성에서 문화의 역할- 롱테이블 E3
21. 오픈세션 - 끝나지 않은 과제 E4

감사의 글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여러 기관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는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문화재단

CJ문화재단
Korea through the 5enses™
Moet & Chandon
노르딕문화기금
노르웨이문화예술위원회
동아오츠카
복순도가
스웨덴예술위원회
아시아유럽재단
예술의전당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캐나다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병은, 전현희, 김리나, 전수빈, 정선희, 박영준, 천사라, 김세란, 김나영을 비롯한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준비에 함께해 주신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예술후원·홍보센터 그리고 정병국 위원장님, 비상임위원님들, 송시경 사무처장님을 포함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윤천학, 이기복, 곽현주, 김인성, 김종현, 이태근, 김지희 일곱 분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사무국: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사라 본드, 케이트 닉슨, 제사 멜리코, 앵거스 피츠, 앨리엇 블레드소 그리고 문화예술세계총회 준비팀의 메레디스 오켈, 다이앤 도드, 안드레스 그리브니코우, 그리고 IFACCA 이사장 및 모든 이사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의 프로그램 개발과 토론문 편집에 큰 역할을 해주신 IFACCA 전 정책 및 참여 국장 아누파마 세카르, 그리고 지난 6년간 IFACCA 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사이먼 멜러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후원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협력

삼성문화재단

ASIA-EUROPE FOUNDATION

Arts and Culture Norway

Canada Council for the Arts
Conseil des arts du Canada

복순도가
福順都家

동아오츠카

CJ 문화재단

Norwegian Embassy
Seoul

NORDISK KULTURFOND

SWEDISH ARTSCOUNCIL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artsummit.org

#ArtsummitKorea

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한국문화예술위원회